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323-665-0009, 323-665-9025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12월 8일 (토) 제 170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마음이 움직이면 지갑이 열린다!

바나리서치, 성탄시즌 맞아 미국인 자선/기부 동기부여 원인 설문조사 결과 밝혀

무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기부와 자선재단 활동은, 미국을 이끄는 힘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자선문화를 이끄는 것은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다. 실제 미국 부자 가운데 자선·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2% 안팎이지만, 보통사람들은 70% 이상에 달한다. 또 보통 사람들의 기부 총액이 부유층 인사들의 기부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사회운동가 마이클 오닐이 자선단체를 비즈니스, 정부와 함께 '미국을 움직이는 3개의 힘'으로 꼽은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봉 2-3만 달러 정도를 버는 미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자신의 수입에서 평균 2%를 사회에 환원한다. 또한 전

체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주당 4시간씩 크고 작은 자선활동에 참여한다. 미국인들의 자선활동 참가율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10대 청소년부터 칠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수입을 내놓는 것이다. 이들의 사례는 자선정신이 지닌 사회변혁의 힘을 남김없이 보여준다.

대강절, 즉 성탄 시즌을 맞아 바나리서치는 바로 이러한 미국인들, 특별히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이 무엇 때문에 기부나 자선에 열정을 다해 뛰어드는가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What Motivates Christians to Give?).

바나의 설문 결과는 한마디로 "마음이 움직이면 지갑을 연다"였다. 즉 감동을 받거나 기부를 하지 않고서는 배겨날 수 없는 감정적 충동이 기부와 자선을 가능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현금, 기부/자선에 참여하는 이유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로 응답한 미국인들이 62%, "무엇인가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듣거나 보았을 때"라고 45%가 응답할 정도로, 마음이 움직이면 곧바로 물질이건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었다.

실제로, 지구촌 빈곤퇴치에는 2011년 설문 조사 때보다도 11% 증가한 57%의 미국인들(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은 62%)이 비록 많지 않은 기부나 현금이지만,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복음주의적 크리스천일 경우, 자신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제시하는 비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다. 결국 교회 출석율과 신앙의 강도에 따라 '기부'와 '자선'이라는 나눔의 문화가 더욱 왕성하게 전염되고 있었다. 특히 기부나 자선 수혜자/단체를 선정할 때, 마음이 움직이는 대상에 46% 이상의 크리스천이 동참하고 있어, 당장 요구되는 도움이나 긴급 상황에 기부를 하는 비율(32%)보다 높았다.

거의 대부분의 신실한 크리스천들(91%)은 교회에 현금을 통해 기부/자선 활동을 한다. 십일조나 일반 현금을 드리고 교회가 선교 단체나 자선 단체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미국 국민의 70%가 기부나 자선에 참여한다. 기부나 자선이 생활문화화 된 셈이다.

교회에 드리는 현금 외에 75%가 선교에, 70%가 커뮤니티에서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돕는 단체나 기관에, 그리고 64%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구하는 개인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치고 있었다.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현금을 통해(93%), 선교 단체에(81%) 그리고 필요를 요구하는 개인에게(72%) 하나님에게 받

은 물질을 나누고 있었다. 바나리서치는 또한, 기부나 자선 활동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아직은 조금밖에 돈을 벌지 못하는 밀레니엄 세대는 84%가 50달러 미만만 했다. 반면,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경력이 있는 엘터 세대는 37%로 대폭 하락되고 있었다. (11면으로 계속)

"나는 어떤 소그룹에 속해있지?"

리더십저널, 교회 사역을 돕는 5가지 유형의 소그룹 사역 소개

교회 내의 소그룹에는 제자훈련 그룹, 협력과 회복 그룹, 셀그룹, 통합 그룹, 기초 연합 그룹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교회 사정에 따라서 다섯 가지의 모든 그룹을 시작할 준비가 돼있지 않을 수도 있다. 리더십저널은 각 그룹의 유형과 특징을 소개하면서, 각자 어떤 그룹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비전과 소그룹 사역에 적합한지 생각해 보도록 도움을 준다(5 Types of Small Groups to Help Churches).

이 모델에서 지도자는 하나의 멘토로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걸로 초대해, 그들이 또 다른 그룹을 재탄생시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나눔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델이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들이 제자 삼는 일을 하도록 파송하셨다. 제자훈련 그룹은 대부분 매우 헌신된 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강한 제자를 만들어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제자훈련 그룹

이 그룹은 로버트 콜먼의 저서 '선교의 마스터 플랜'에 제시되고 있다. 이 그룹의 성경적 기초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사제 관계'와 '책임'으로 그 사역을 확장하신 모습이 다. 선교에 대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 모델의 성경적인 원리이다.

2. 협력과 회복 그룹

다른 소그룹 모델들은 교회 내의 모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협력과 회복 그룹은 정반대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3면으로 계속)

Small Groups



시론 은회관 목사

2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인터뷰 은회관 감독

16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p>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p> <p>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p>	<p>ATS 정회원</p> <p>월드비전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p> <p>www.wmu.edu</p>
---	---

월드비전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온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평상 가격만큼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름 예정입니다. 특별가액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oks.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시론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은희곤 목사
(참사방교회)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애틀랜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담(Roundtabl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담은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세계감리교협의회(WMC, 회장 박종천)가 기독교대한감리회(KMC, 대표단장 은희곤 감독), 미연합감리교회(UMC GBGM 이사장 정희수 감독) 등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먼저 '지미카터센터'를 방문했습니다. 94세의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새로운 약속'이라는 제하의 환영사를 해주신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그리고 이어 역시 91세이신데도 불구하고 "평화 만들기란 회의와 불신을 멈추는 것, 평화는 평화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제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제임스 레이니(전 에모리대학교 총장) 전 주한 미국대사의 강연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오프닝 세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김영준 애틀랜타 총영사가 대독했습니다.

오프닝 세션을 마친 참가자들은 인근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로 자리를 옮겨 두 번째 세션을 시작했으며, 이번 원탁회의를 주관한 연합감리교회 정희수 감독(세계선교부 회장)의 환영사와 한국 감리교회를 대표한 은희곤 감독(미주지역연회)의 답사, 이번 회의에 불참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의 기도편지 소개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원탁회담을 참가하면서 참 많은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들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더 깊은 연구와 더 실제적인 실천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확인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안(우먼 크로스 DMZ 국제코디네이터), 김종대(리제네레이션 무브먼트 대표), 피터 프로브(세계교회협의회 국제협력국장), 세라 손(고려대학교 인권센터 교수), 크리스 라이스(동북아 메노나이트 중앙위원), 에릭 외인가트너(CanKor 편집장) 등이 자기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강연과 더 나은 실천적 행동을 위한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은 오히려 고난 가득 여정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인가? 이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산상수훈 8복의 주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마 5:9) 우리가 비록 한민족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미움과 증오와 분단이 극대화된 한반도에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 peacemaker"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 단장으로서 "세 번째로 모인 오늘 원탁 회담이 적대적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상생, 화해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자리가 되고 세계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그리고 많은 형제 교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분명한 역할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한때 금지곡이었던 노래 '작은 연못'의 가사를 인용하여 "깊은 산 오솔길 옆 작은 연못에 살고 있는 예쁜 붓이 2마리처럼 남과 북이 서로 싸워 한반도가 결국 그 누구도 살지 못하는, 아니 그 누구도 살수 없는 작은 연못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남과 북이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연못 한반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원탁회담을 마친 뒤 그레이스 연합감리교회로 자리를 옮겨 성찬식을 겸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공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잔 헨리 크로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이반 아브라함스 감독의 설교와 은희곤 감독(한국), 신시아 하비 감독(미국), 로즈마리 웨너 감독(독일) 등이 집례한 성찬식으로 이어졌으며 김종호 목사가 축도를 하였습니다. 애틀랜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세환 목사)의 성가대, 어린이 합창단, 가야금과 장구 등등이 예배를 함께 도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4), 한반도에 다시는 동쪽끼리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38선, DMZ 말구유에 오셔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14-19)라는 말씀이, 2018년 대강절을 맞아 한반도에 성육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그 어떤 공동체 안에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pastor.eun@gmail.com

지구 종말 앞당기는 9대 위험 요소...

뉴스위크, 스웨덴 GCF 2018 보고서 통해 구가 당면한 재앙 시나리오 제시

화학무기라든가 슈퍼화산(폭발할 때 분출하는 마그마와 화산재가 4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화산)이 분출하는 용암에 의해 인류가 멸종된다고 말하면, 할리우드 재난 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린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그런 것이 인류가 종말을 맞을 수 있는 실질적인 요인에 속한다.

우리 모두가 직면한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스웨덴의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재앙 위험(Global Catastrophic Risks)'은 연례 보고서 '2018 글로벌 재앙 위험(Global Catastrophic Risks)'에서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그럴 듯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연구팀은 수많은 과학 논문을 검토하고 학자들의 견해를 들었다.

영국 왕립 천문대장이며 케임브리지대학 산하 실존적위험연구센터(CSER)의 공동 설립자인 마틴 리스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 대다수가 비행기 추락 같은 익숙한 위험을 걱정하면서도

새로 등장한 실질적인 위험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히 발달하는 신기술의 잠재적인 위험과 환경적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어서는 위험을 말한다. 이런 위험은 닥칠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극도로 긴밀히 연결된 지구촌에서 그런 위험이 발생하면 전 세계에 파급효과를 미쳐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다."

2012년 출범한 GCF는 세계 인구의 10% 이상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 위험을 조사해 매년 보고서로 발표한다. GCF는 앞으로 50년이 인류의 미래 1만년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GCF가 올해 보고서에서 밝힌 인류가 당면한 9가지 재앙 위험이다(HOW WILL THE WORLD END? EXPERTS REVEAL NINE MOST LIKELY WAYS HUMANS WILL BE WIPED OUT).

핵전쟁

전문가들은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현재 10년 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약 15만 명이 사망한 이래 "세계는 역사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핵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들은 지적했다. 현재 최고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는 반



적인 기상 이변의 증가를 포함한 많은 부정적 여파가 촉발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생태계 붕괴

GCF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생존하기 위해 균형 잡힌 생태계에 의존한다. 생태계는 인간의 영향력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편이지만 지탱할

신기술 급속 발달 따른 잠재적 위험과 환경적 임계점 넘는 위험

핵전쟁, 생화학전 등 전쟁이나 기후변화, 전염병, 인공지능까지

경 1-4km 안에서 사람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의 80-90%를 없앨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약 7000기의 핵탄두로 최대의 핵 병기고를 보유하며 영국·프랑스·중국·인도·파키스탄·북한·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거나 추정된다.

핵전쟁은 인명과 도시를 거의 완전히 파괴하고 방사능 질병의 위험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낙진에 의해 지구의 축소판 방화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화학전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는 다른 전통적인 무기에 비해 제조비용이 비교적 낮다. 특히 유전공학과 합성생물학 분야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생물(세균)을 치명적인 무기로 바꾸기가 어느 때보다 더 쉬워졌다. 이런 세균이 실수나 악의적

으로 실험실에서 유출된다면 "전례 없는 규모의 유행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후변화

2015년 전 세계 195개국이 파리기후협정에 서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이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산업화 이전 시기와 대비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약속이 포함된 협정이다. GCF

보고서 저자들은 그 상승폭이 3°C 이상 이 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

이 된다면 해수면 상승으로 미국 뉴욕, 인도 뭍바이, 중국 상하이 등 세계의 해안도시가 수몰되고 해안지역의 낮은 곳에 거주하는 인구 10억 명이 상이 높은 곳으로 이주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파괴의 규모가 우리의 모델링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10월 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C만 높아져도 홍수와 흑서 등 극단

수 있는 한도가 있다. 오염이나 외래종의 세계적 이동, 서식지 파괴가 하나 같이 생태계를 위협한다. 만약 생태계가 회복 한계를 넘어서면 담수가 부족해지고 토양의 질이 저하되면서 연쇄작용에 의해 생물 다양성이 심각하게 손상된다. 그에 따라 "인간의 일상생활 조건이 크게 악화된다"고 GCF 보고서 저자들은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 중서부의 차드 호수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발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나는 어떤 소그룹에 속해있지?”

(1면에서 계속)

이 모델은 교회 내의 소극적인 사모교인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뒤에 나오는 '연약 그룹'에 헌신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주일 설교도 듣지 않았거나 대부분 듣지 못한 사람이다. 그들은 큐티 모임에 참여해서 성경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마 '구역 모임'에 참석해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지도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짧은 기간의 협력 그룹이나 회복 그룹이 있다면 이러한 모임에는 참여하려고 할 것이다.

협력과 회복 그룹은 단기간 안에 교회 밖에서 세상적인 것에 아직은 물들은 구도자들을 교회에 연결시켜 줄 수 있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아웃사이드들을 교회의 제도권 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3. 셀 그룹

이 그룹은 풀러신학교 선교연구소

의 칼 조지에 의해서 개발된 메타 모델과 연관이 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올 통합 그룹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 그룹에서는 목회자가 주일에 설교한 성경 본문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각 그룹에서 보조 리더를 훈련시켜 사



역을 확장하기 위한 설립 체계로써 그 초점을 보살핌에 둔다.

이 모임에서는 '빈자리'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 들인다. 그룹이 10명 내지 12명으로 성장하면 보조 리더가 한두 사람을 데리고 새로운 셀을 구성한다.

이 모델은 교인 전체를 셀 단위로

인의 재편성에 교인 전체를 보살피고 돌아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따라주지 않을 때는 지도 체계가 관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통합 그룹

이 그룹의 성경적인 기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델이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장소에서 모였다. 한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한 고리일수록 더 쉽게 깨어질 수 있단 말대로 그룹의 결속력이 대단한 만큼 거기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그룹이 쉽게 와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지도자의 리더십에 공백이 왔을 때는 모든 그룹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5. 기초 연약 그룹

현대의 많은 사람은 대가족과 안정된 평생직장, 믿을 만한 이웃을 잃어버림으로써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연약 그룹은 현대인들이 원하는 바로 그런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것은 마치 부동산 임대 계약서와 같이 소그룹을 시작할 때, 미리 약속을 체결하고 그 연약에 근거해 모임을 진행한다. 이 약속에서 그룹은 그들의 목적과 세부 목표, 몇 주 동안 만날 것인가,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가 그리고 지켜야 할 규칙 등에 대해서 자세히 결정하게 된다.

이 그룹은 서로가 약속한 연약에 근거해 모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룹원들이 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고, 지원해 시작되는 모임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새플린 임상목회 (23)

정신 질환에 관한 정의와 종류(2)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아직도 일부 목회자 분들 가운데에는 모든 정신 질환은 영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귀신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다소 미신적인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의 단편적인 체험이나 편향된 신학으로 균형 잡힌 안목을 상실한 채 설 불리 환우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는커녕 상태만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교 교과 과정에는 목회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적인 정신 질환에 관한 지식과 의학적 치료법에 관한 교과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상담(Biblical Counseling) 과목들이 제공되는 신학교에서는 정신 질환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영적 접근 및 치료법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미국정신과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편찬된 자료에 근거해서 정신 질환은 과연 무엇이고, 그 종류와 증세들은 어떤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신 질환에 관한 정의(지난달 칼럼 참조)

2. 대표적인 정신 질환의 종류

1)불안증(Anxiety Disorders, 지난달 칼럼 참조)

2)우울증(Depression): 우울증은 한 사람의 느낌,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의학적 상태입니다. 중증 우울증의 일차적 징후들은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환자가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 하에 있거나 정상적인 일상 활동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음식을 섭취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 부부 생활이나 취미 오락과 같은 일에도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증상들로는:

△입맛이나 식욕의 급격한 변화 △수면 장애(불면증이나 과다수면증) △불안, 초조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 △사고능력, 집중, 의사결정 능력 저하 △피로감, 기력소진감 △자살과 죽음에 대한 충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일반적인 슬픈 감정에 비해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애痛함에 사로잡혀 있게 되며, 그 기간이 훨씬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그 증세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신체적인 에너지와 삶의 기쁨을 소진하게 되며 삶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는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성인의 약 7%가 매년 중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섯 명 중에 한 명의 여성은 평생에 한 번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울증의 종류로는 우울증의 다양한 증세들이 2주 이상 지속해서 나타나는 △중증 우울증(Major Depressive Disorder), 다소 경미한 우울증의 초기 증세들이긴 하지만 적어도 일 년 이상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지속성 우울증(Persistent Depressive Disorder), 그밖에 임신부들이나 산모들이 출산 전후에 보이는 △출산 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 등이 있습니다. 갱년기를 맞은 중년 여성들 중에서 특히 심각한 중증 우울증을 호소하며 장기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갱년기 우울증(Menopause Depression) 이 새로운 우울증의 종류로 취급되어 많은 연구와 자료들이 발간되고 있기도 합니다.

필자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여성 성도들 가운데 심각한 갱년기 우울증으로 인해 가정과 사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많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따뜻한 이해와 친절한 말 한 마디가 큰 힘이 되며 위로가 됨을 목격하였습니다. 교회 내의 중년 여성 성도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의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우울증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tdspar@gmail.com

지구 종말 앞당기는 9대 위험 요소...

(2면에서 계속)

이 호수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에 속했지만 기후변화와 가뭄, 과도한 관개 등으로 1960년대 이래 크기가 90%나 줄었다. 그에 따라 차드 호수에 의존하는 아프리카인 4000만 명의 삶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전염병

역사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세계 인구의 15%가 목숨을 잃은 적이 두 차례 있었다. 그러나 백신 프로그램의 보편화 등 의학의 발전으로 콜레라와 말라리아 같은 질병의 발생률이 지난 세기에 크게 줄었다. 그러나 재앙적인 유행병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가 막아낼 준비가 되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생물이 예를 들어 수도를 통해 인구 밀도 높은 도시 지역을 감염시키면 견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항생제 내성도 큰 문제다.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되면 감염을 막는 필수적인 무기가 사라진다.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로 사망하는 인구가 2050년까지 매년 7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GCF 보고서 작성자들은 내다봤다.

소행성 추락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인간이 지구에 부주의하게 대하는 것만이 아니다. 특히 소행성 충돌은 약 6500만 년전 공룡의 멸종을 가져온 것들 비롯해 지구 역사상 3차례에 걸친 대멸종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구 가까이서 궤도를 도는 소행성 중 그보다 더 큰 것이 앞으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증거에 따르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소행성의 추락은 평균 12만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소행성 추락으로 발생한 잔해와 먼지가 대기를 뒤덮으면 몇 달 동안 태양을 가려 작물과 생태계가 극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GCF 보고서에 따르면 그럴 경우 사망자가 수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슈퍼화산 분화

약 7만4000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슈퍼화산 토바가 폭발하면서 수십억 톤의 황산염과 먼지를 대기로 내뿜는 바람에 인류가 거의 멸종 직전으로 치달은 적이 있다. 슈퍼화산 분화에 대한 데이터는 비교적 제한됐기 때문에 분화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화산학자들은 슈퍼화산 분화가 평균 1만7000년마다 발생한다고 믿는다. 가장 최근 발생한

슈퍼화산 분화는 뉴질랜드에서 약 2만6500년 전 발생했다.

미국의 옐로스톤 같은 슈퍼화산이 분화하면 인간과 동물이 대규모로 죽고 농업 인프라가 붕괴한다. 오래 남는 황산염과 화산재 같은 오염물질이 단기간 태양광선을 차단해 지구 기온이 떨어질 수 있다. 이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기온 저하는 인간 같은 생명체의 생존에 상당히 불리하다.

태양 지구공학

태양 지구공학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에어로졸 같은 입자를 방출해 태양 광선과 열을 우주로 반사하는 이 방식은 지구의 기온을 낮출 수 있지만 일이 잘못되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오존층에 해를 가할 수 있으며 생태계를 교란시켜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GCF 보고서 작성자들은 지적했다.

인공지능(AI)

과학자 중 상당수는 인간 두뇌와 대등한 인공지능이 수십 년 내에 출현하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춘 기계도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보고서 저자들은 로봇이 인간지능을 초월하는 상황에 특히 우려를 표했다. 또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윤리보다 기능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인공지능이 생명을 해치도록 설계될 수 있으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램되더라도 작은 실수로 인해 지능이 높은 기계의 손에 인간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슈퍼지능 시스템이 대형 사회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막으려는 인간의 시도를 목표달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험한 시나리오로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인공지능이 무기로 발전하거나 긍정적인 목표를 이루도록 프로그래밍 된 인공지능이 파괴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다.

인류는 새로운 지구적 재앙을 예측하는 데 실패를 거듭해왔다. 첫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이를 예측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1945년 유엔이 결성될 때만 해도 기후변화를 염두에 뒀던 사람이 없었다.

이스라엘 블라바트니크 학제간 사이버 연구 센터의 로이 체자나 연구원은 GCF 보고서에서 경제·과학적 발전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구가 별의 갑작스런 폭발에 노출되면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처럼 이론적인 위험들도 있다고 했다.

동역자를 청빙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45년의 한인이민교회 역사 위에 다민족 선교와 다음세대 양육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퀸즈장로교회가 함께 동역할 두분의 목사님과 한분의 찬양사역자를 다음과 같이 청빙하고자합니다.

1.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2. 목사님은 35세~45세 전후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리더십과 설교의 은사가 강하시면 좋겠습니다.
3. 찬양사역자(목사님 또는 전도사님)도 35세 전후이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이 좋겠습니다.
4. 언어와 신분에 어려움이 없으셔야 합니다.
5. 이력서, 자기소개서, 목사님 추천서, 지인 추천서
6.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편이나 Email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퀸즈장로교회 동역자 청빙 위원회
주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Email: kapcqmain@gmail.com

퀸즈장로교회

담임 김성국 목사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초교과 교회로써 지난48년동안 휴스턴 한인지역 사회에서 보수전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에 힘써온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8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1. 정규목사교육과정(M. Div.)을 이수하신분
2. 55세 미만
3. 미시민권자, 영주권자이시거나또는미국에합법적으로체류하고계신분
- 4.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분

제출서류

1. 이력서및가족소개서
2. 목회비전및신앙고백서(3 Page 미만)
3. 최근설교2회분 동영상 또는CD/DVD/USB
- 4.목회안수 증명서
- 5.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 6.추천서(2인) 및 조회처 List (최소 3곳 기재)

기타사항

-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류심사후, 청빙후보자에게 개별통지 드립니다.
-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만받습니다. (전화문의사절)
- 봉투 겉면에 "담임목사 청빙서류 재중" 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2018년 12월 31일

제 출 처

1. 우편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KCCH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2. 이메일 kcch2019@gmail.com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날마다 죽는 사람

사도 바울은 말한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유명한 말이다. 내가 아주 좋아해서 늘 외우는 성경 구절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루에 백번이라도 외워 보시라.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죽

었다'는 말이다. 스스로 죽었다는 것은 큰 포기를 말한다. 자기 부정을 말한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무슨 뜻인가? 이걸 경험해야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경험적인 선언이 중요하다.

나만 죽으면 아니, 나를 죽이면 평안해지는 것 우리 다 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한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낮춰라.' 비워라, 말하자면 욕심을 비우고 자존심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내가 비우고 죽인 것조차 잊어버리라고 한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밥 안 먹은 것은 잊어버렸는데 배가 또 고파오지 않는가? 그러니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소유욕, 탐구욕, 명예욕, 성취욕, 그리고 이 자존심. 다 죽여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가? 아니 불가능하다.

특별히 자존심이 있어서 화가 나고, 잠도 안 오고, 뭐 생각이 많아진다. 보라! 사업이 망하는 것보다도 망했다고 소문나는 게 큰 문제다. 안 그런가? 내가 병든 게 문제가 아니다. '아무게 병들어 죽었다.' 그 소문이 걸리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병원에 입원해도 찾아오는 것 거절한단다. 나 혼자 아파 죽어도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래서 죽어도 화장을 하고 죽는단다. 이게 여자의 마음이다. 그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는 거, 과연 얼마나 깊은 데 뿌리박고 있는가? 내 마음을 비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내 마지막 자존심 버리는 것은 더더욱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율법과 은혜의 신비스런 긴장관계를 발견한다. 죄인 된 내가 사라지고 성령의 확증해주시는 대로 죄인 된 나는 이미 죽었음을 바라본다. 그래서 성령도 말씀한다. '너 옛사람은 죽었다.' 이 언적 경험이 중요하다. 율법적으로 죄인된 나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어지는 것이다.

또한 계속적인 reminding이 필요하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하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다. 독버섯처럼 내 속에 교만한 자아가 다시

게를 듣다. 또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말처럼 '날마다 죽는 사람'이다. 이 말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다. 신앙이란 뭐냐? "Daily baptism이다. 매일 세례 받는 것이다. 매일 매일 옛사람으로는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김익두 목사님은 신전의 유명한 강과 두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돼서 전도하러 다닌다. 그때는 걸어서 부흥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보파리를 걸머지고 산을 넘어 어느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데 산을 올라가면서 너무 더워서 정상에 올라서서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쏘이면서 옷을 훌렁 벗어 제치고 좀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에서 술 취한 청년 하나가 올라오더라. 그런데 올라오더니 다짜고짜로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주먹으로 때리는 거다. 한참 때려도 목사님이 대항을 하지 않으니 까 씨씩거리면서 숨을 몇 번이고 몰아쉬더라. 그때 목사님이 그 손을 딱 잡고 "형님 다 때렸소?"

김익두 목사님이 그 큰 손으로 꼭질 때, 벌써 이 청년은 이 분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 때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다.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자녀가 받았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너 여기서 죽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네가 살았다. 예수 믿고 내가 죽었으니 내가 살았다 말이야. 알았어!" "그래 이 사람이 어떡하면 좋겠는가? '뭘 그래? 따라와' 그래 데리고 가서 부흥회에 참석시켰는데 그가 회개하고 나중에 교회장로님이 됐다.

생각해 보라.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아니 내가 산다. 사도바울은 제사 드린 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내가 먹는 것을 누가 보고 시험 든다면 나는 평생이라도 안 먹겠노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당연한 권리도, 당연한 주장도 포기하는 성숙한 신앙인 그가 바로 '날마다 죽는 사람'이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조응철 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요일2:6).

요한의 예수께 대한 애정은 흠과 티가 없는 순수하고도 참 아름답고 예수와 요한 사이에는 간격이 없는 아주 밀착된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만큼 가까이 모시고 싶어서 자기의 머리를 예수님의 품에 묻고 애정을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비가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자기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품)에 묻었을 때 그 가슴에서 하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품어져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만져보십시오!

2. "나타나신 것은"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신데 나사렛 사람, 예수로 나타 나셨다는 것입니다.

도성인신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귀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케 했으니 마귀는 "배신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함이니라"(요일3:8)고 했으니 마귀는 "죄의 근본"입니다. "죄는 불법이라"(요일3:4)고 했으니 "마귀는 불법자"입니다.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하게 됩니다.

(1)첫째로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헬라어로 마귀를 "살인자/Man Slayer"라고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과 육을 죽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품에 질병도, 고통도, 가져다줍니다.

(2)마귀는 또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요7:15-16).

예수는 근본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거짓말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요17:3).

(14면으로 계속)

그리스도 강생의 목적 (1)-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목회자요 신학자인 G. Campbell Morgan 목사는 그리스도 강생의 목적을 넷으로 설명하였습니다. 1)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요일3:8) 2) "죄를 없이 하려고"(요일3:5) 3) "아버지를 보이려고"(요일4:9) 4) "재림을 준비하사려고"(히9:28)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생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강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이래 줄곧 예수 강생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 성취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중심은 한 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복음은 오신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끝 책인 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기록이며, 결론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강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

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옛 마귀의 일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 곧 죄는 소멸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되고,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1.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첫머리와 요한일서 첫머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

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요 1: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일:14).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1:1).

님의 가슴(심장)의 고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위엄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1:1)고 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보고, 만져 본" 그

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3.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합니다.

1)"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마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요일1:1)고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요일8:4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세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골수진보주의(반기독교 성향)로 향하는 캘리포니아, "Golden State" 가 "Godly States" 으로 변화될 기회는 사라졌는가?

중간 선거를 통해 전국의 여러 주들의 판도가 바뀌는 때에 캘리포니아와 뉴욕같은 주들은 이번에도 예외였는데, 오늘은 캘리포니아만 다루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반기독교적 성향의 정책(진보, 좌파)'이 계속 늘어나며 한 당(민주당)이 주도하는 곳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ACLU나 FFRF, Human Rights 등 성경적 가치관을 온전히 없애고자 캘리포니아에 들어왔었던 "인권단체"로 둔갑한, 그러나 사실은 반기독교 단체들은 이제 캘리포니아를 다 삼켰다고 믿기에 몇 년 전부터 중부의 바이블 벨트(Bible Belt) 주들을 겨냥하여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크리스천들이 주목하고 기도해야 할 매우 심각한 중간 선거결과 중 하나는 바로 새로 뽑힌 주지사(Governor)가 게빈 뉴섬(Gavin Newsom)라는 사실인데, 그 이유는 마지막에서 다룹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캘리포니아의 박자들'

캘리포니아가 좌파, 반기독교적 정책들로 거듭날수록 그에 대한 연쇄작용으로 캘리포니아를 떠나 "붉은 초장의 주-Redder Pasture(공화당이 우세한 주 또는 성경적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는 주)"인 텍사스나 미주리, 캔자스 주 같은 중부나,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가까운 아리조나 그리고 네바다로 저세울과 저규제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가주 베이 지역(Bay area) 시 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주민의 46%가 캘리포니아를 떠날 계획이 있으며, 그것은 2016년의 12%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조사에 참여해 캘리포니아를 떠날 계획이라고 한 사람들의 61%는 바이블 벨트(성경적 가치관이 강한)인 미중부 쪽으로 이사를 계획을 밝혔습니다.

왜 이토록 아름답고, 놀랍도록 쾌적한 날씨, 입이 벌어질 정도의 풍경 그리고 즐길 것이 끝도 없이 많은 캘리포니아를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첫째, 거의 완전히 반성경적인

정책들(97%가 반기독교적, 도표 참조)이 문화를 형성시키고, 공립 학교에서는 자녀들에게 심하게 한 쪽으로만 기울어진 반기독교 가치관(진동성애, 친이슬람, 낙태, 공산주의 숭배, 신앙의 자유 무시, 학부모 자녀교육권리 무시)들로 세뇌시키는 교육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두번째, 힘들게 일하여 하루하루 사는 시민들과 중산층에게

의 귀를 간지럽혔을 뿐 실제로 도움을 준 정책들이 거의 없었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주민들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움보다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삶의 가치관과 더 좋은 생활력, 그들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 떠나고 있다고 정리할



American Bible Society and Barna(2014-2017)



가장 성경적인 도시(1-5)부터 가장 비성경적인 도시(97-100)

는 높은 세금, 건물 규제 그리고 도로 넘어선 환경보호 규제, 정신질환을 생산해내는 약물사용 정책 등등이 대표되는 진보성향의 정책들인데, 결국 생활비를 차츰하게 하여 주거비도 감당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 성실하게 일을 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생활고민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 주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앞에서는 화려한 약속들로 시민들

수 있겠습니까.

캘리포니아의 문제를 다루자면, 몇 권의 책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심각하게 주목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게빈 뉴섬(Gavin Newsom)이 주지사로 당선된 것입니다.

게빈 뉴섬이 왜 캘리포니아와 우리 자녀들에게 위험인물인지 몇 가지만 나눕니다.

1. 그는 우리 자녀들을 트랜스젠더와 친동성애 교육으로 더 강력히 세뇌시킬 것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반기독교정책을 펼쳤던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전 주지사가 다행히도 지연시켰던 "소아성애자 정상화" 발의안이 곧 법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시간문제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Jackie Speier(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SB1172에 제리 브라운이 서명하고 법안이 되었는데 SB1172 안에는 "소아성애자-Pedophilia"를 "Sexual Orientation" 즉, 성별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기에, 그다음에 나오는 법안이 소아성애자를 "정상"이라고 해도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미 발판을 만들어 놓았다는 현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까지도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지지와 동성애 로비스트들에 의해 소아성애자를 "정신질환자, 비정상인" 목록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역시 의학적으로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발판까지도 깔아놓은 것입니다.

2. 그는 Pro-Choice(낙태 지지)를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는 우리 자녀들의 공립학교에서 더 난잡한 변태적인 내용을 "Sex Education"이라는 명목으로, 나이에 맞지 않은 성교육을 가르치는 Planned Parenthood를 적극 후원하는 사람으로 무책임한 공립학교 성교육과 낙태지지도 교육을 더 많이 미화시킬 것입니다.

3. 주정부가 부모들의 자녀 양육 권리를 빼앗는 정책들을 강화시킬 것인데, 그중 한 예가 바로 원치 않는 동성애 교육, 연령에 부적합한 성교육 등으로부터 내 자녀를 빼줄 수 없게 하는 정책을 이미 펼친 캘리포니아지만 그 정책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기독교적(좌파 자유진보주의) 정책들을 가지고 나올 것인데, 이제는 공산주의로 향하는 사회주의성향의 정책들까지도 활발히 펼쳐질 것이 예상됩니다.

(9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신문을 보니 최근에 한국 인천의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어느 목사가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이것은 역사도 모르는 중복사상을 가진 자의 미친 행동으로 보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맥아더 장군의 공로를 보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토렌스에서 장 집사

A: 이것은 역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김명도 목사가 쓴 "내가 체험한 6.25"라는 개혁신앙 43호 부록을 참고하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해방 후에 남침전쟁을 위해 5년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남조선을 3일이면 부산까지 점령하여 8월 15일을 통일조선의 경축일로 삼겠다는 허망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일성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1950년 2월에 소련에 가서 그 당시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중국에 가서는 주석이던 주은래 수상과 중공군 사령관 모택동의 허락을 받고 또 그때 북으로 간 남로당의 박헌영이 말한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남한의 국민들 20만명이 봉기할 것이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믿고 결국 1950년 6월 25일에 그 무서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6월 28일 이를 만세 서울이 적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4000여명이 건너던 한강다리도 폭파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에 익사했습니다. 유엔에서는 한국군들이 발발하자 6월 26일에 긴급 안보리를 열어 북에게 속히 뒤로 물러가라고 종용했으나 북의 김일성은 응하지 않고 북

맥아더 장군은 한국을 공산화에서 구한 사람

한 공산군은 계속 남진하여 드디어 낙동강까지 진격해 내려갔습니다. 이제 낙동강 이남인 대구와 부산이 뚫리면 한국은 공산화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목회자들은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기도 및 회개와 금식하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Allied Forces(유엔군) 사령관에는 당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국동 사령부 사령관이었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학적 존재) 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6일 밤 10시반경에 이승만 대통령은 도쿄에 있는 맥아더 장군에게 전화하여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한국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하여 낙동강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무렵 1950년 9월 15일 미명하에 군함 280여척을 동원하여 역사적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서울이 1950년 9월 28일에 수복되었고 서울을 탈환한 유엔군과 국군은 북으로 패주하는 인민군을 추격하는 동시에 남으로 낙동강까지 괴뢰군을 격파하여 진격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맥아더 장군의 유엔군은 북으로 북진을 계속하여 백두산까지 이르게 되자 이제 통일은 시간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중공군을 불러 들어 1950년 10월 26일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6.25사변에 개입했고 날씨는 무척 추워서 싸움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인제전술을 동원한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자 38선까지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만주를 폭격할 것을 트루만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거부당하고 오히려 맥아더 장군을 1951년 파면했습니다. 이때 만주를 폭격했다면 한국전은 승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한국을 공산화에서 구한 우리민족의 영웅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한국은 벌써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전쟁영웅을 기념하는 동상에 불 지른 것은 아무리 목사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김일성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입니다.

AZUSA AWESOME NIGHT!

2018 아주사 송년 모임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ZUSA 동문,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반갑고 즐거운 송년모임을 마련했습니다. 오랜만에 동문들과 만남을 통해 선후배 간의 마음 따뜻한 교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 꼭 오세요!!!

일시 2018년 12월10일 월요일 오후 6시
장소 Garden Suite Hotel, Banquet Hall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문의 승광철 목사 (661)618-9392, 송희진 전도사 (818)497-1964
경품추첨으로 50인치 스마트 TV와 서독안경 선글라스 4개, 학교셔츠, 블루투스 스피커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APU Alumni Korean Chapter



AZUSA PACIFIC
UNIVERSITY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멕시코의 후이츨(Huichol)



후이츨족은 멕시코-인디안 종족으로 후이츨레(Huichole), 테비(Tevi)나 위자리카(Wizarika)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후이츨족의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 역사적으로 그 지역의 험한 지형 때문에 그들은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격리됐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후이츨인들은 자급하기 위해 식량을 재배하는데, 옥수수, 콩, 스카쉬(호박의 일종), 칠리(고추의 일종)가 흔히 재배하는 작물이다.

후이츨 남자들은 전통의상의 하나로서 밝은 색조로 수를 놓은 면이나 무명 셔츠를 입는다. 거기에 가죽 샌들을 신고 끈으로 땀은 야자 모자를 쓴다.

라는 거주지에서 함께 살며 이러한 작은 공동체는 핵가족 가족들로 이뤄져 있다.

인근의 란초 지역들을 함께 묶어 사원지역(temple district)으로 부르며 사원지역들은 또 보다 큰 공동체지역(communitary district)에 속한다.

후이츨인들은 주술사가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무당들은 추측컨대 어떻게 병을 고치고 축제의식을 거행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꿈을 통해 지시를 받는 것 같다.

신앙

그들은 카톨릭이 지배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후이츨인 대다수는 애니미즘 신앙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인간이 아닌 사물에도 영혼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후이츨인들은 억압당하는 민족으로, 구세주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 그들은 정령과 다시 숭배로 둘러싸여 있으며, 자부심이 강한데다 너무나 독립적인 민족성을 갖고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오늘날, 예수의 복음을 후이츨인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기회가 있다. 신약성경과 영화 "예수"는 그들에게 이용할 수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처음으로 외국 선교사가 자국에 거주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겨우 여섯살, 성 정체성 혼란이라니...”

미국 텍사스 주 델러스에 사는 여섯 살짜리 아이의 성적정체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크리스천헤드라인닷컴은 28일 텍사스 법원이 델러스에 사는 A씨에게 여섯 살짜리 아들 제임스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의 엄마 B씨는 제임스가 아들로 태어났지만 딸의 성적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이가 여자아이 옷을 입는 것을 격렬히 거부하는 등 아내와 성정이 치료 전문가가 오진했다는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인 윌드 헤이어는 제임스가 너무 어려 성적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이것만 놓고 생물학적으로 남자아이인 제임스를 평생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게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A씨가 다니는 교회의 빌 로벨 목사는 “제임스랑 시간을 보냈는데 제임스는 평범하고 건강한 여섯 살짜리 사내아이였다”면서 “불행하게도 제임스는 성 정체성 혼란을 부추기는 분위기에 휘말리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헤이어는 법원 판결에 따라 A씨가 제임스를 당분간 아들로 대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은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게 금지했다”면서 “아버지는 아이에게 옷 선물할 때에도 남자아이 옷과 여자아이 옷을 함께 선물하고 아이가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트럼프 정부가 성(性)의 정의를 ‘출생 시 생식기에 의해 결정된 생물학적 성, 불변의 조건’이라는 좁은 의미로 정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버지 부시 전 미 대통령 별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별세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아버지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4월 17일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모친인 바버라 부시 여사가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1966년 미 텍사스주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부통령을 역임한 뒤 1988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는 평가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이 열리는 5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트위터 성명을 통해 “부시 전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 낸 것을 평화로운 승리로 종식했다”고 썼다.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는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국장(國葬)으로 치러진다. 미국에서 국장이 열리는 것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 이후 11년 만이다.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는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국장(國葬)으로 치러진다. 미국에서 국장이 열리는 것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 이후 11년 만이다.

휘황찬란 크리스마스 집 장식 민폐?...소송 일단락

크리스마스에 집을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장식한다면 민폐일까 아닐까.



일명 ‘크리스마스 전쟁’으로 불리며 지난 4년간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27일 시애틀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다호 주 헤이든에 사는 제레미와 크리스티 모리스 부부는 지난 10월말 헤이든 집주인 위원회(Hayden States First Addition Homeowners Association·HOA)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이다호 주 북부의 코틀레인 법원은 HOA가 부등산공정거래법(Federal Fair Housing Act)을 위반했다고 판단, 모리스 부부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1만 5000달러를 포함해 총 7만5000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HOA는 그러나 모리스 부부의 크리스마스 집 꾸미기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불빛과 밀려드는 교통, 소음 등이 이웃들에게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모리스 부부는 결국 지난해 HO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도중 HOA가 모리스 부부에게 보낸 공문에 ‘종교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코틀레인 법원은 종교적 차별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HOA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HOA측 관계자는 “모리스 부부가 이 일을 공론화시키고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호소하면서 보수 기독교 세력을 선동했다”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법에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변호사인 제레미 모리스는 이에 대해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면서 “우리 가족은 어디에 살든 기독교적 신념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쇼핑몰 충격’ 12살 소녀 구한 청년의 기도

추수감사절에 발생한 엘라베마 쇼핑몰 충격 사건 당시 위협을 무릅쓰고 열두 살 소녀를 살린 10대 청년이 영웅이 됐다.



미국의 지역뉴스 매체인 FOX6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엘라베마 쇼핑몰 충격 사건 현장에서 용감하게 나서서 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한 주 방위군(National Guardsman) 라샤드 빌링슬리(18)의 활약을 소개했다.

빌링슬리는 운동화를 사러 쇼핑몰에 들렀다가 총소리를 들었다. 주 방위군인 그는 평소 훈련받은 대로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곳을 향해 뛰어갔다.

빌링슬리는 “소녀를 들어 올리자 셔츠의 등 뒤에서 피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출혈이 계속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황급히 쇼핑몰 옷걸이에 걸려 있던 셔츠를 꺼내 상처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베넷을 돌봤다. 베넷은 빌링슬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빌링슬리는 “꼬마 아이가 정말 강하고 용감했다”면서 “소녀가 나아졌더니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빌링슬리는 지난 26일 자신을 칭찬하는 베넷 가족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먼저 제가 바로 그 쇼핑센터에 있었고 또 소녀를 살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면서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아마 제가 물리를 살리는 일에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페이스북 간증글에 네티즌들은 2000여개의 좋아요와 670여건의 공유를 누르며 공감했다. 네티즌들은 “현실세계의 진짜 슈퍼 히어로”라거나 “정말 멋진 사람이네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이라는 댓글로 칭찬했다.

엘라베마 쇼핑몰 충격 사건은 지난 22일 밤 9시50분쯤 후버시 인근 리버체이스 갤러리아 쇼핑몰에서 시작됐다. 용의자 애런 브라운(20)은 사건 당일 한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다 권총을 꺼내 총을 쏘았다.

존 차우는 준비된 선교사였다

지난 16일 인도 북서부 산악지역에서 선교사역 도중 원시부족이 쏜 화살에 맞고 숨진 존 엘런 차우(27)는 철저한 준비와 신교훈련을 병행한 선교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준비도 없이 무모하게 섬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비난했다. 차우 선교사의 시신은 현재 북서부 산악지역에 매장돼 있으며 인도 정부는 시신을 수습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와 크리스체너티투데이 한국판(CTK)은 지난달 29일 차우 선교사를 파송한 올네이션스의 매리 홀 국제대표를 인터뷰한 팟캐스트 방송을 공개하고 “차우 선교사는 오지 선교를 위해 세밀히 준비했던 사람이다.”

홀 국제대표는 차우 선교사에 대해 “그는 전혀 섬김하거나 충동적이지 않았다. 온화한 성품의 청년으로 선교에 집중했다”고 회고했다.

차우 선교사는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센터빌섬과 유사한 섬을 찾아 환경에 적응하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혔다. 오렐로버츠대에서 스포츠의학을 전공했고 언어연구에도 다녔다.

홀 국제대표는 “차우 선교사는 선교사가 되기 위한 엄격한 평가와 심사과정도 거쳤다”며 “수년간의 준비와 훈련, 북서부 산악지역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시뮬레이션에 맞는 대응법까지 익혔다”고 설명했다.

홀 국제대표는 다만 “차우 선교사가 팀을 이루지 않고 단독으로 준비하고 선교를 떠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테드 스테이 CT 편집장은 “차우 선교사가 위험한 일을 했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그의 삶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인 명령이며 그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유럽, 서유럽에 비해 더 종교적



중유럽과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 동성결혼과 낙태를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고, 삶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더 많았다.

지난달 30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는 퓨 리서치(Pew Research)가 지난 2년간 유럽 34개국의 약 56,000명을 대상으로 ‘유럽의 종교적 분위기와 사회적·정치적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기독교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주류 종교였다. 조사결과, 34개 유럽국가 중에서 27개 국가에서 기독교가 다수 종교로 남아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분열이 이 공동된 종교적 정체성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정교회는 동유럽, 가톨릭은 중유럽과 남유럽, 개신교는 북유럽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서유럽에서는 무신앙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인간이 아닌 사물에도 영혼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불, 태양, 비와 같은 자연에 존재한다고 믿는 영혼과 신령들을 달래고자 하는 것이다.

후이츨인들은 주술사가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무당들은 추측컨대 어떻게 병을 고치고 축제의식을 거행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꿈을 통해 지시를 받는 것 같다.

후이츨인들은 주술사가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무당들은 추측컨대 어떻게 병을 고치고 축제의식을 거행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꿈을 통해 지시를 받는 것 같다.

체코의 경우는 중·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응답자의 다수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낙태와 관련, 응답자의 다수가 낙태는 법적으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국가는 조지아(85%), 몰도바(79%), 우크라이나(55%), 러시아(56%), 벨라루스(54%), 폴란드(52%), 그리스(52%) 등 7개국이었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64. 김린수 전도사(1866-1949)

김린수는 1864년 4월 14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41세가 되던 1905년에 상항으로 도미했다. 가족은 이듬해 도미한다. 그는 남가주 하변(리버사이드)에서 노동 주선소를 열고 동포의 노동을 주선하였다. 1909년 4월 국민회 하변 지방회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법무로 피선되었다. 그날 선임된 임원은 회장 차정석, 부회장 백신구, 총무 이응호, 서기 백신구, 재무 김기만, 학무 이응호, 구제 김윤각, 대의원 이치완, 이응호 등이었다. 그런데 그해 하변 인근 산타아나로 이주하여 웨스트 1가 1411번지에 거주하였다.

1915년 5월에 미국 북장로교 리처드 목사의 지도로 산타아나 기도처가 세워진다. 이인형의 캠프 안에 예배당을 설립하고 순회 전도사 홍치범의 인도로 3년간 예배를 드렸다. 이때 김린수가 교회의 중역을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화봉인의 진심 기도
수, 부, 다님 세 가지로다

2. 지역 풍상 그 갖은 초초
장년에 집 떠난 그이가
무정한 인간의 공로로

1905년 41세에 상항으로...64세에 달라노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선임 74세 때 다시 전도사 임명...태극 국어학교 개교, 교회건축 등 헌신

다. 이밖에 전도 주임에 한시대가 교육 위원에 조울림과 김진규가 선정되었다. 그해 9월의 동양인선교연회가 위의 한 목사를 중가주 구역 목사로 선임하고 달라노 교회는 그의 목회 하에 있게 된다. 한 목사는 토요일과 주일을 이용하여 한 달에 한번 달라노를 심방하고 예배를 인도한다. 이날 주일학교 공과는 만국 주일학교 통일 공과를 사용하고 국어학교 교과



달라노 한인감리교회

와 함께 김린수를 달라노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선임했다. 66세의 김린수는 적어도 73세가 되던 1939년까지 9년 이상 전도사로 봉직한다. 이날 탁사(건물관리부장)에 김순기, 재정 유사(재정부장)에 이용선, 교육 위원에 조울림과 김진규, 태극 국어학교 기성회장에 한중상, 평신도 인도자와 평신도 총대에 김애나를 임명했다. 1930년 3월 현재 리들리와 달라노와 태프트를 잇는 왕복 360 마일의 리들리 구역의 교인은 75명이었고 출석은 50명이었으며 지난 1년간 미성년자 1명이 세례를 받았고, 재무 유사 김린수의 보고대로 1929년 7월부터 1930년 3월까지 드린 헌금 총액은 966달러였다.

태극 국어학교

김린수 전도사의 목회에서 태극 국어학교의 개교는 뜻있는 사역이었다. 1930년 6월에 달라노의 한인 유지들이 달라노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린 후 7월 14일에 한시대의

식의 아름다운 독창과 합창이 있었던 후 국어학교 직원을 선출했다. 교장에 한중상, 서기에 조울림, 재무에 이용선이 피선되었다.

이날 국어교육을 위하여 김린수는 5달러를 기부했는데, 무엇보다도 1925년에 아들 용찬을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들에게 심어주었을 것이다.

그해 5월 26일에 미국 연합 감리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 대표로 온 협성신학교 김인영 교수와 송도고등학교 교감 임두희 목사가 달라노 교회를 방문하였고 전도대회를 인도했다.

1930년에 모인 미국 남감리교 가주동양인선교회 연합회는 중가주 구역 목사로 스타톤의 김 탁 목사를 선임했다. 이듬해 연합회는 달라노 교회를 나성 한인감리교회 황사용 목사의 감시 하에 둔다. 그런데 그달에 이기연 목사가 달라노 한인감리교회에 부임하였다.

1935년에 김린수의 딸 노라가 맹장염 수술 후 향년 24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위로해 준 조객에게 감사의 글을 신한민보에 올렸다:

"자식의 죽음에 대하여는 너무나 비참하고 통일(통한?)에 아무 친구에게도 이르지 않고 또는 급히 장사를 치르려고 하였는데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이렇게 자식의 죽음의 길을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문지면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감사 하나이다."

아들에 이어 딸을 먼저 보낸 그는 어려운 자를 '먼저' 찾아가 전도하고 위로했으리라.

교회 건축

아들에 이어 딸까지 잃어버린 김린수 전도사는 교회 건축에 힘쓴다. 1936년 3월에 김 탁 목사가 달라노 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추진한 예배당 건축에 김린수도 합세했다. 스타톤 한인감리교회가 폐지되면서 본 예배당 건물값 500달러와 교인의 특별 헌금으로 예배당을 신축한다. 그도 헌금하였을 것이다. 당시 교회 주소는 프레폰트 1301번지였다.

1938년 10월에 있었던 한인교회 지방회는 한시대와 함께 74세의 김린수를 달라노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임명했다. 1941년에 전도사로 임명을 받지 않았고 1944년의 삼일절 기념식에서 80세의 김린수가 기도순서를 맡았는데 선상으로 볼 땐 이때는 전도사가 아니었던 것 같다.

1940년 5월 김린수가 자신의 달라노 포도농원에서 건초를 싣다가 갈비뼈를 상하여 약 1주일간 치료를 받는데 이즈음에 중가주 아리라에서 부인 메리와 손자 샘과 함께 거주했다. 1949년 1월 17일에 향년 85세로 소천한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 로라와 아들 용찬이 안장된 남가주 산타아나의 패러해본 기념공원에 안장되었다.

유가족으로 부인 김메리와 아들 용찬과 딸 달리가 있었다.

damien.sohn@gmail.com

달라노

김린수는 1925년경에 가족은 산타아나에 두고 농사를 위해 혼자 달라노로 이주한다. 그해 삼일절 행사에서 그는 기도와 연설을 맡았다. 달라노와 인근 맥팔랜드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3월 1일 오후 2시에 모여 최석영의 사회 아래에 '무궁화'를 불러 개회한 후였다. 한유경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유애나의 '애국가' 독창 후에 김린수는 한중상, 장봉석, 최석영, 김형각과 함께 차례로 연설을 하였다.

이들은 독립운동의 과거와 장래를 말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하고 마쳤다.

환갑연

김린수의 장남 김용전과 장녀 김달리가 남가주 산타아나 자택에서 환갑연을 배설했다. 락관생이 쓴 '김린수씨 환갑연에'에 김린수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 1. 뜰에 심은 신령한 명초
6순이요 또 1년이라

머리털 귀밑이 희었다

3. 뜰 앞에 선 향기로운 린초
가지가지 불빛 날리니
썩명이 한 개 웬일인고?
주인의 느낌 적지 않다.

4. 헌수 술잔 높이 받들고
아들 딸이 축수하는바
'세상 근심 다 잊으시고
백수 무강하옵시라'

달라노 한인감리교회

1929년 7월에 달라노 기도처가 창립했다. 미국 남감리교 동양인선교회 '한인 신령상 위원장'이자 오를랜드 한인교회의 임정구 목사가 달라노에 기도처소를 마련하고, 다음 달 25일에 미국 남감리교 데이비스 목사를 앞세워 마주홍 전도사와 함께 리들리교회 한석원 목사가 달라노를 방문한다.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형각의 딸이 유아세례를 받은 후 교회직원을 조직하였다. 김린수는 재무 유사(재정부장)가 되었



김린수의 묘비

서는 조선어 독본을 쓰기로 광고했다.

전도사

1930년 3월 16일에 모인 교 중가주 구역의 제1계삭회는 유아세례식 후 한시대

주택에서 국어학교를 열기로 하였다. 강의할 때 올라서는 단을 이제희 여사가 만들기로 기쁘게 허락하였고 리들리의 이창희가 10일 동안 가르치기로 했다. 한석원 목사의 딸 모데스토 대학생 한하은, 글렌데일 대학생 이한상, 리들리 중학생 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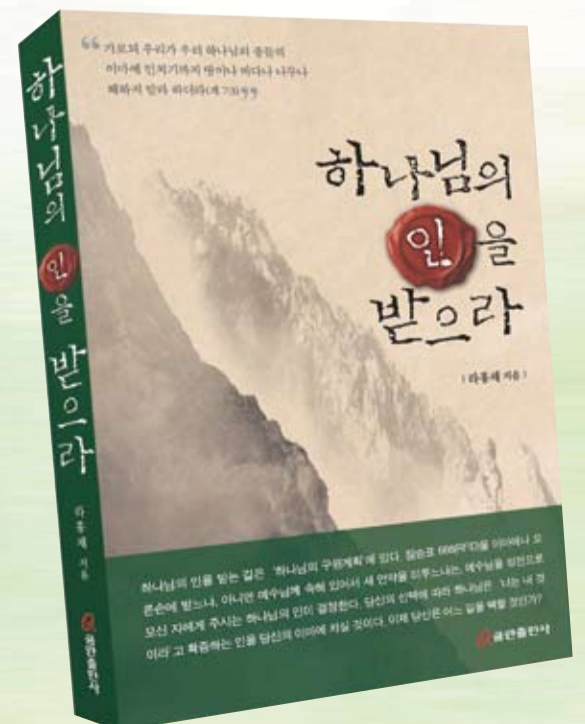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재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리더십 코멘터리 (78)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리더의 연말정산, 소통하고 큰 결실을 맺어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지금까지 세계에서 일어난 역사상 가장 큰 사고는 1994년 1월 3일 스페인의 레온에 있는 엘토르 터널에서 생긴 사고였다. 5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였는데 사실이 열차는 기관차를 앞과 뒤에 달고 달리는 아주 긴 열차였다. 사고가 난 이 날 열차가 엘토르 터널에 들어갔을 때 앞쪽 기관차가 갑자기 섰다. 작은 기계 고장이었는데 위기를 느낀 뒤에 달린 기관차가 기차를 터널 밖으로 끌어내려고 후진을 시작했다. 바로 그 때 앞 기관차의 고장 난 것이 바로 고쳐졌다. 그래서 앞 기관차가 다시 기차를 앞으로 끌기 시작했지만 뒤에서도 반대로 끌고 있어서 기차가 앞으로 나가질 않았다. 그러니까 가속을 시작했다. 두 기관차가 앞뒤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쫓다기를 계속하는 동안에 기차는 정지 상태로 있었고 그 시간 기관차에서 뿜어내는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터널 속에서 500명의 승객들이 죽게 된 것이다.

이 사고의 원인은 앞 뒤 기관차 기관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은 고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가 난 이 사건은 지도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조직에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산 교훈이 될 것이다.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의 솔루션

진실된 커뮤니케이션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유효한 역할을 해주고 필요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만약 사역의 과정에서 리더가 성도와 커뮤니케이션을 나누지 못한다면 비전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해도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이해

에 달려 있다. 서로의 감정 처리를 명확하게 하고 진실된 말을 나누어야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진실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한다.

리더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자신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때 리더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선택해야 정확한 전달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신중하게 고민할 때 의사소통의 깊이가 더해진다.

전달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일정하고 적절한 때에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다. 교회는 의사소통을 통해 성장한다. 너무 말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자주 의사를 전달해야 부작용이 적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회와 사역을 위한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하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리더로서 교회 성도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 리더가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기술들을 갈고 닦을 때, 교회는 좀 더 건강하고 깊이 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되라

윌 듀란트(Will Durant)라는 역사학자는 교회사 속에서의 아픈 상처들을 지적하면서, “교회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박해해왔다. 한 부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것인가? 교회와 영적리더들은 아래의 3가지 리더십의 원리에 주목하여 새로운 리더를 양육하며 훈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리더십의 원리 1: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자.

리더십의 원리 2: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

대개 사람들은 몇몇의 특별한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리더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편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실 때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출4:10)라고 고백하면서 부르심을 거부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을 실현하는 최고의 리더로 사용하셨다. 모세는 “나는 리더감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세는 “좋은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리더십의 원리 3: 훈련하면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사도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이란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공부한 유능한 사람이다. 사도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헬라 철학에도 탁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는 이전보다 더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사도바울은 훈련을 통해 더 좋은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미 좋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훈련하면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열심을 다해 많은 결실을 남기는 리더가 되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총장을 지낸 니콜라스 머레이는 이 세상에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부류는 언제나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다. 세상의 중요한 일은 언제나 소수의 몇 사람이 이루어진다. 이 시대 최고의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세상을 개선하려고 미국을 이끌어갈 700명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야기의 유명하다.

두 번째 부류는 일을 그르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어느 사회나 일을 그르치는 부류가 존재한다.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는 몇 사람의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한다고 했다. 몇 사람의 독재자, 사기꾼, 아첨꾼, 이기주의자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

세 번째 부류는 잘못된 것을 보고

도 수수방관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마치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는 사람, 나 몰라라 하는 이기주의자들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

당신은 리더로서 이 세 부류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부정적인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인정하고 깨달아서 긍정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긍정적인 리더로 바꾸시려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

2018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리더가 필요한 때이다.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는 리더를 기대한다. 행동하는 리더가 되어라. 그리고 열심을 다해 많은 결실을 남기는 리더가 되기를 기도한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도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정리력’

때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영으로 그냥 알 때가 있다. 변화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우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정리력이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맘이 너무 격하고 힘들 때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인사이트들을 조금씩 알아차리게 되리라.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란 책을 읽었다. ‘삶을 정리해 드립니다’란 제목에 끌려 책을 집었다. 그 책을 읽고 어쨌든 내 삶의 구성구색에서 정리가 시작되었으니 그 책은 내게 효력이 있는 셈이다. 그 책의 내용은 매일 15분이란 시간을 정리를 위해 쓰는 습관을 가지면 일생을 정리된 가운데서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심 정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산다. 정리는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어느새 수북이 쌓여지는 것 때문에 혼란 상태가 되고 만다. 정리는 다분히 단순하게 사는 삶과 연관이 되는 것 같다. 시간을 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물건을 사용 후에 제자리에 두는 것,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남을 주거나 버리는 것,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은 가능한 사지 않는 것... 등이 심플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의 습관이라.

몸이 짜투름 하다가도 샤워를 하고 나면 상쾌해진다. 우리 매일 세상과 대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쌓였던 영적 먼지들을 위해 영혼의 샤워를 해야 한다. 정리력이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온갖 불순물들, 더러운 생각들, 말들, 미움, 두려움, 의심, 낙심들을 영혼의 샤워로 깨끗이 치우고 정리하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 말씀과 기도로 보내는 시간 없이 하루를 끝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인도하고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영적 정리력을 기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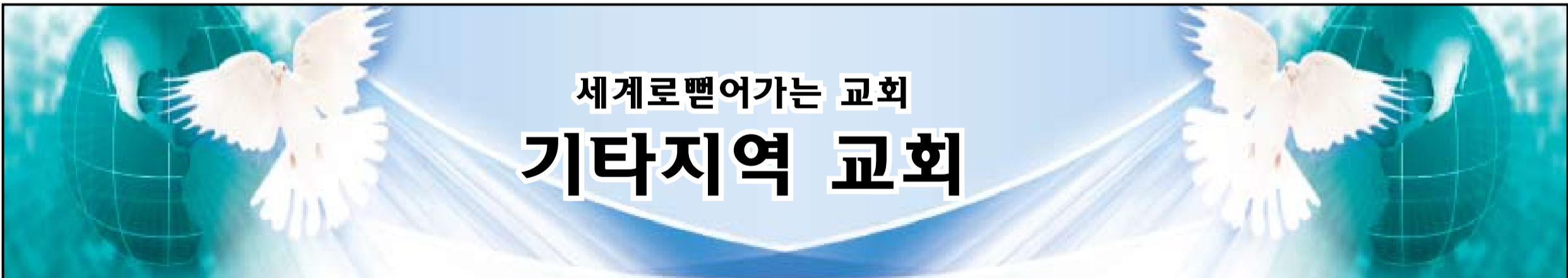
언제나 나에게 메일을 보낼 때면 제목란에 ‘삶이 아름답다...’라고 보내주는 분이 있다. 그런 메일을 받을 때면 전혀 그렇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하등 부끄러움에 가슴이 콩닥 거린다. 그렇다. 우리는 굳이 그 아름다움을 찾아 어디론가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아름다운 삶은 어디에도 존재하는데... 그 아름다움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건데... 정리력이다.

그렇다. 정리는 삶에 대한 애정이고 세심한 관심이라. 그것은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요 사랑이 아닐까. 그냥 소유하려고만 했던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몸과 마음과 환경이 비워지고 치유되는 정리력을 새롭게 창조해가면 어떨까?

거울이 깨끗해야 내 모습이 잘 보이듯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자기 모습을 잘 들여다 볼 수 있으리라. 자기의 참 모습을 본다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 정리력이다.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심령이 깨끗한 자는 다른 사람 속에서 선한 것을 보리라. 우리의 심령이 이런 마음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를 시작하면 좋겠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그 길로만 따라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 길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며 그 길속에서 가장 좋은 생각과 마음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엄청난 정리력을 가진 사람이라. 영혼의 질서와 함께...

changsamo1020@g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06)579-7576, Fax: (2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pton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2:00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ps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n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역: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brs.com	앵커리지 Bethel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전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역(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422-0288, Fax: (215)42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노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2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영예배: 오전 1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계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7:45 금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cu.org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성탄 트리 유감(遺憾)

올해도 어김없이 11월 마지막 주부터 교회들과 사람들이 주목하는 장소들에 트리가 세워졌다. 일명 성탄트리들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렇게 세워진 세상의 트리들에는 성탄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다는 점이다.

기예다 Happy New Year! 라는 덧붙임이 따르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트리의 주된 목적이 Merry Christmas 라는 사실이 빠져서도 빠질 수도 없다는 점이었다.

이런 치사함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긴 하다. 이전 통행금지기가 있을 때 성탄전야 즉 크리스마스 이부라고 불리던 12월 24일에는 통행금지가 없다. 통행금지의 억압과 설움에서 해방을 맞고자라도 하듯 수많은 인파가 정말로 별 볼일이

없음에도 거리로 쏟아져 나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보다는 (한국)정부가 선심을 쓰듯 해제한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한 축제에만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복음, 즉 구원과 생명 등에는 별 관심도 없이 그저 불나방과 같이 하루를 즐기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성탄이 빠지는는 않았다. 다시 말해 트리가 세워지는 곳곳에는 축 성탄! Merry Christmas! 라는 문구만은 빼먹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 날이 어떤 의미의 누가 주체인가는 분명히 명시했다. 무더기지는 했으나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는 말씀이 있오되 모양(模樣)이라는 것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 흉내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도 잘 안다. 고양이에게 표범의 무늬를 그려 넣는다고 고양이 표범은 되지 못하고 아무리 원조(元祖)라는 말을 가져다 붙여도 짝퉁이 짝퉁은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화려한 트리들이 세워져도 Merry Christmas 가 없으면 그것들은 성탄트리가 아닌 것이다.

말고 있는 그 진실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듯 어리석게 호도(糊塗)하고 있는 정부와 세상이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허수아비와 같다. 성탄이 빠진 트리는 그저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조화(造化)가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것에서 향기는 나지 않는다. 볼품이 없는 호박꽃에는 벌나비가 찾아들지만 화려한 조화에는 가치가 없는 날파리들만 쫓는다.

hanmac@cmi153.org



빅토밸리한인목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신임임원들

빅토밸리한인목사회 새 회장에 김성일 목사 제 13회 정기총회 열고 신임 임원 선출

빅토밸리한인목사회(회장 김송국 목사)는 지난 11월 19일 오전 10시 빅토빌예수마음교회(담임 김성일 목사)에서 제 1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담임) △총무: 강성수 목사(빅토밸리복음교회 원로) △회계: 류창렬 목사(나눔동산교회 담임) 또한 △재정 감사는 관례대로 직전회장이었던 김송국 목사(새생명한인교회 담임)가 맡았다. (기사제공: 빅토밸리한인목사회)



월드미션대학교 학생음악페스티벌에서 전출연자들과 관계자들이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번스타인과 그의 친구들' 주제로

월드미션대학교 제24회 학생음악페스티벌 열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제 24회 학생음악페스티벌을 1일 오후 7시30분 지퍼홀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오픈하우스 모습

베데스다대학교 오픈하우스...입학설명회

베데스다대학교(설립자 조용기 목사) 오픈 하우스가 12월 1일 오후 12시 개최됐다. 입학설명회로 진행된 오픈하우스는 경영, 경찰행정, 스포츠 매니지먼트, 유아교육, 목회학, 성서신학, 음악 및 MBA 석사과정, 그리고 목회학 박사 과정 등 학과별로 나눠 진행됐다. 베데스다대학교는 유학생을 위

한 SEVIS I-20를 발급하며, 미 연방정부 학비 지원 및 용자 신청과 재향군인(Veterans)을 위한 재정 보조(Financial Aid)가 가능하다. 동 대학교는 1906년 LA 부흥운동의 영성, 믿음과 꿈, 생각 그리고 말의 신념으로 설립된 40년 전통의 종합대학교로서 ABHE, TRACS 정회원 및 전미 크리스천대학동맹회인 NCCAA에 가입돼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buc.edu 또는 (714)517-1945, (714)517-1945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태평양법률협회, 크리스마스에 대한 법적자료 출간

태평양법률협회(대표 브래드 다쿠스, www.pacificjustice.org)가 "Christmas Q&A, 크리스마스 절의 응답"을 정리해서 소개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법적 자료를 출간했다. 협회 측은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인정하고 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다"며, "예를 들면, △시의회에게 청사 앞에 크리스마스트리 및 예수님의 마구간 정경 설치를 할 수 있는가? △부모들에게 공립학교에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는가? △직

원들이 자신의 작업장 또는 책상에 크리스마스 장식 설치의 권리에 대해 자문을 구해왔다"고 밝혔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출간된 free Q&A 이 자료는 공공장소 포럼이나 직장 또는,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 사이트(korean.pacificjustice.org)를 방문하거나 한국어 데스크 이메일(rju@pji.org)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태평양법률협회)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연, The Golden State의 'G'가 'Godly'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는 앞으로 더 더욱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알람: CA District 65로 나왔던 Young Kim 의원이 mail-in 투표 때문에 승리 결과가 뒤집혔다는 소식입니다. 부정투표가 많은지라 그 결과가 심히 의심스럽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영킴의 "승리"라고 미리 알려 혼돈을 드려서 지면을 통해 사과를 드립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2019년 GMS 미주 OMTC 6기 선교사 훈련생 모집

GMS(Global Mission Society)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한국 최대 선교단체로, 현재 100 개국에 2600여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GMS 미주 선교사 훈련원에서 GMS정규 특별과정 6기 선교사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기 원하는 분이나, 파송단체가 없는 현장 선교사나 혹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이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28일 월요일부터 2월 22일 금요일까지 4주간 정규특별과정을 마치시면 GMS 정식 선교사훈련 수료증과 파송과 임명을 받게됩니다. 훈련 장소는 플러튼에 있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박사원에서 진행되며, 강사진으로는 선교 전문성을 갖춘 GMS 이사들과 현장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학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GMS선교사로 훈련받아 파송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1. 일 정: 2019년 1월 28일(월) - 2월 22일(금) 4주간
2. 장 소: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도서관 세미나실 201 S Basque Ave Fullerton CA92833
3. 과 정: GMS특별과정
4. 강 사: 김정훈 GMS이사장, 박무용 OMTC이사장의 다수
5. 훈 련 비: 1,500불(숙식 포함)
6. 대 상: 목회자 및 선교사, 평신도
7. 자 격: 1) 목사선교사후보생은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합동교단 목사 2) 장기파송은 부부선교사 파송을 원칙으로 함 3) GMS 아메리카지역 소속된 각 지부 지부장 추천 받은자 4) 전도사나 평신도는 타 교단 소속도 가능
8. 훈 련: 4주 합숙 훈련이 원칙이지만 출퇴근도 가능
9. 등 록 마감: 2019년 1월 15일
10. 문 의: GMS 미주 선교사 훈련원 간사 김수정 선교사
11. 연 락 처: 전화번호 714 323 5011, 714-614-3666 이메일 igmc21@gmail.com



GMS 이사장: 김정훈 목사
GMS 미주 선교사 훈련원(OMTC) 이사장 박무용 목사
GMS 미주 선교사 훈련원(OMTC) 훈련원장 이병구 선교사

동부교계 기사판



부교역자 청빙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교역자를 청빙한다. 2명의 목사와 1명 찬양사역자로 자격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35-45세 전후(목사), 35세 전후(찬양사역자)로 이중언어와 합법적 체류신분 소지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목사추천서, 지인추천서가 필요하다. 마감은 12월 31일까지 우편(143-17 Franklin Ave. Fkushing, NY 11355)이나 이메일(kapcqmain@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718)886-4400

목회자 부부 "머슴 세미나"

패밀리리더(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목회자 부부를 위한 "머슴 세미나"가 12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패밀리리더에서 열린다. 강사는 빌립보교회 송영선 원로목사로 주제는 "부부가 서로 머슴되어 교회를 섬기자." 등목회는 부부당 1백 달러(선착순 15커피). 뉴저지교회가 주관한다.

▲문의: (862)686-8515 이경애 사모

퀸즈한인교회 4대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퀸즈한인교회 제 4대 담임목사(김바나바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12월 9일(주일) 오후 5시 퀸즈한인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예배 후 만찬이 베드타운에서 제공된다.

▲문의: (718)672-1150

뉴욕장로연합회 정기총회

뉴욕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로) 정기총회가 12월 14일(금)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 지하 특실에서 열린다.

▲문의: (240)381-4028

고든콘웰 Th.M. 입학설명회 및 목회자 세미나

고든콘웰 2019년 Th.M.과정 뉴저지클래스 입학설명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12월 11일(화) 오후 3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세미나는 "21세기 교회성장"(강사 이용걸 목사) "누가복음의 이슈들과 성경해석"(강사 홍승민 목사)이며 입학 설명회는 Neely Gaston 박사(Executive Director of Charlotte & Jacksonville Campus), 김정일 박사(Associate Director of Korean Program), 이규본 박사(Director of Korean Th.M. Cohorts). 참가대상은 목사, 선교사, 전도사(M.Div. 학위소지자).

▲문의: (718)787-8999 이규본 목사, (718)490-6316 박병섭 목사

플러신학원 뉴저지 공개 특강

플러신학원 뉴저지 공개 특강이 "공포의 문화와 목회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조의완 교수를 강사로 열린다. 일시는 12월 9일(주일) 오후 6시 식사, 7시부터 8시30분까지 강의하며 장소는 밀알 장애인 쉼터(30 Legregni St. Saddle Brook).

▲문의: (201)638-5148 강원호 목사

이스라엘 성지순례

뉴욕기독교방송(CBSN, 사장 문석진 목사)이 개국 4주년을 기념해 1차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진행하며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의 주제로 2019년 2월 24일(주일)부터 3월 2일(토) 5박7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성지순례는 '주일을 성수하는 성지순례'다. 순례 지역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리, 가나, 나사렛, 가이사랴, 음바 등으로 관광여행코스카 아닌 성지순례 중점. 참석인원은 30명(선착순)이며 여행경비는 1,300달러+항공료이며 계약금은 300달러(환불불가). 예약마감은 1차 2018년 12월 31일, 2차 마감은 12월 30일. 이메일: cbsntour@gmail.com

▲문의: (718)354-5545, 414-4848 정철호 팀장

"존경받는 목사회, 서로 격려하는 목사회"

뉴욕목사회 제 47회기 표어 및 임원 발표



지난 11월 26일 열린 뉴욕목사회 정기총회에서 신규임원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모자이크교회 설립 4주년 행사에서 장동일 담임목사가 임직자에게 임직패를 수여하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 제 47회기 "존경받는 목사회, 서로 격려하는 목사회"를 표어로 정하고 임원들을 선임 발표했다.

지난 27일 카톡방을 통해 전해온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태규 목사 △부회장:

이준성 목사 △총무: 김진화 목사 △서기: 박시훈 목사 △부서기: 최요셉 목사 △회계: 김희숙 목사 △부회계: 이철희 목사 △수석총무: 이희선 목사(남) 김정숙 목사(여). 뉴욕목사회는 지난 총회에 부회장 후보로 출마해 이준성 목사와 경선했던 김진화 목사를 총무로 선임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12월 10일(월) 오전 10시 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회장 이취임 예배를 갖는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합창단 제 5회 정기연주회에서 단원들이 공연하고 있다.

"세상에 빛으로 평화로 선포되길"

뉴욕목사합창단 제 5회 정기연주회

뉴욕목사합창단(단장 김중훈 목사) 제 5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2일 오후 5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단장 김중훈 목사는 "주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사랑뿐이기에 부족해도 향유 욕망 깨뜨려 주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며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임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길 소망하고, 오늘의 찬양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분열의 세상에 평화로 선포되기를 기도한다"고 인사말에서 밝혔다.

이날 단원으로 고요한, 김상태, 박덕상, 이문용, 이보형, 지인식, 엄달호, 박진하, 황의환, 김중훈, 김천표, 이종학, 노성도, 이지용, 이종선, 최윤섭 목사가 있으며 지휘자 이다익 목사, 반주자 정지은 목사가 공연했다.

목사합창단은 "나의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의 열매", "주를 보

게 되리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주님 한 분 밖에는", "주기도", "변화 되었네"를 불렀다. 또 중창단이 "진실하신 친구"를 불렀다.

이외에 뉴욕장로성가단과 월드 밀알선교합창단, 오케스트라, 뉴욕사모합창단, 크리스탈 핸드벨콰이어, 이애실 소프라노 등이 특별출연했다.

또 마지막에는 "거룩한 성", "거룩한 주"를 연합으로 찬양했다.

연주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중훈 목사 인도로 황의환 목사 기도 후 방직각 목사가 설교했다.

방 목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시50:2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생각의 패턴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며 "행복의 비결은 감사(기쁨)로 제사(희생) 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입당, C&MA 가입, 임직, 기금전달

뉴욕모자이크교회 설립 4주년 맞아 행사 풍성

뉴욕모자이크교회(담임 장동일 목사)가 교회설립 4주년을 맞아 교도 입당, C&MA 교단가입, 임직, 기금전달 등의 행사를 가졌다.

12월 2일 주일 오후 5시 새 예배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장동일 담임목사는 그동안 축복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감사하면서 먼저 합심기도를 인도하며 예배를 시작했다.

C&MA 교단 가입순서에서 장동일 목사는 "성격이 다른 많은 교단이 있다. 계속 기도하면서 좋은 교단을 찾다가 전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결정한 교단이 C&MA이다. 성경중심적 복음적 예수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으며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교를 맡은 C&MA 한인총회 백한영 감독은 "함께 지어 가는 우리"(엡2:21-22)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새 예배당에서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되는 현상이 될 것"을 축복했다.

백한영 감독은 2만3천 교회와 30만 성도들이 소속돼 있는 C&MA는 '오직 예수정신으로 선교하는 교단'이라며, 모자이크교회의 성장 발전에 대한 지원은 물론 법적인 보호와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임직식에서는 권사 5명(윤숙경, 최기옥, 최종수, 이혜경, 임근숙)과 집사 5명(이세정, 장남희, 장영선, 전걸, 최영수) 등 10명을 교회일꾼으로 세웠다. 한편 내년 5주년 때는 장로 임직이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청소년과 주일학교의 찬양, 하늘소리 찬양팀의 찬양, 연합성가대의 찬양, 그레이스 워십댄스팀의 몸 찬양, 모자이크 남성중창단의 찬양이 진행됐다.

이날 동 교회는 선교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입 4만 달러를 4개 개척 및 미자립 교회와 6개 지역단체, 장학금 10명, 선교사 5명에게 지원했다.

모자이크교회 새 예배당 주소는 214-31 40 애브뉴, 베이사이드. <정리: 유원정 기자>

이노비 2018 베네프 콘서트

문화복지 NGO 이노비(회장 강태욱)의 후원을 위한 행사 "EnoB Holiday BENEFIT Night 2018"이 11월 29일 오후 7시에 맨해튼 리버사이드교회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장애인, 노인, 입원 환자 등 문화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무료 음악회로 행복을 전달하는 문화복지단체 이노

비 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다. 8시부터 시작된 메인 프로그램인 베네프 콘서트에는 총 4명의 뮤지션들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그 중 음악감독인 임규진은 뮤지컬 "왕과 나"로 브로드웨이에 입성한 뮤지컬 배우이며 임요셉은 한국의 많은 뮤지컬들을 찾아가 무료 음악회로 행복을 전달하는 문화복지단체 이노

한 경력이 있다. 이 외에도 이노비가 할렘에서 음악에듀케이션을 펼치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어린이 대상 애프터스쿨인 노스사이드 센터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다테 산드라 스콧이 기조 연설을 맡아서 진행했다. 이노비는 미국내 뉴욕 외에 텍사스, 시카고, 워싱턴DC, 뉴헤이븐과 한국 및 중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기사제공: 이노비)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etc.

“사랑으로 보여지는 믿음”

제 34회 사랑의 축제 성황리에 열려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주최하고 사랑의 축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제 34회 사랑의 축제'가 1일 오전 11시 나성영락교회에

서 열렸다. 사랑의 축제는 매년 5월과 12월, 남가주 지역 장애인단체와 각 교회 장애사역부들이 연합해 발달장애

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하는 놀이와 친목의 한마당이다.

남가주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 봉사자들 총 700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사랑의 축제 오전 예배에는 나성영락교회 특수사역부 연합찬양팀, 발달장애인 통합오케스트라인 This Ability Orchestra의 특별 무대가 이어졌다.

박은성 목사는 '사랑으로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완성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다.

이후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겨 진



제34회 사랑의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즐겁게 찬양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 연례갈라 행사에서 소망소사이어티 회원 중창단이 소망주제를 부르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 연례 갈라서 9만불 모금

'치매, 함께 하면 길이 보입니다' 주제로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2018 연례 갈라 행사가 2일 오후 5시30분 세리토스 포퍼피아트 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소망소사이어티의 치매사역 확장을 위해 '치매, 함께 하면 길이 보입니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갈라 행사에는 2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참여해 소망의 치매 관련 활동을 지지하며 격려했다. 이번 갈라 행사는 1부 만찬, 2부 기념식, 3부 공연으로 이어졌다.

최경철 사무총장과 최사라 변호사 사회로 열린 2부 기념식에서 유분자 이사장은 "커뮤니티 위한 일이고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늘 기쁘게 일했다. 이제는 뒤에서 밀어줄 때이다.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터전 마련해주고 뒤에서 바람막이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치매는 너무나 힘든 병이다. 그것이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닥쳐오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치매는 치매환자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들게 한다. 치매가족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외면할 수 없

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하고 "치매문제는 정부와 소망소사이어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칠 때 어찌할 바 모르는 치매 가족과 가정이 힘이 생기고 함께 하는 길이 보일 것"이라며 후원자들에게 감사했다.

이창민 LA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의 지도로 시작한 행사는 소망중창단의 소망의 노래, 소망소사이어티의 치매 관련 활동 동영상, 유분자 이사장의 환영사로 진행됐다.

이어 영 김 전 연방하원의원 후보와 LA 총영사관의 구태훈 영사, 마크 오메 알츠하이머 오렌지카운티 협회, 김중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3부 특별공연은 전문음악인들로 구성된 아르모니아중창단이 연주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이번 갈라 행사를 통해 9만 달러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커뮤니티동요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대상 정현 어린이...16개팀 참가

커뮤니티 동요 페스티벌 성료

보나기획이 주최한 커뮤니티 동요 페스티벌이 1일 오후 1시 부에나팍에 있는 더소몰 특별무대에서 열렸다.

소프라노 김중숙과 테너 양두석의 사회로 열린 동요페스티벌은 총 16개 팀이 참가해 열린 무대를 선사했다.

무대는 어린이들의 부채춤과 사물놀이, 그리고 소프라노 김중숙, 클라리넷, 테너 오위영, 양두석의 가곡 무대도 함께 선사돼 페스티벌

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했다. 동요 페스티벌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상: 정현(곡목: 종이접기) △과외리상: 코헨가 4학년 중창단(곡목: 어린이알츠), 최민지(윌터리드중학교, 곡목: 하늘나라동화), 하시엔다시다레인 초등학교 중창단(킨더가튼&1학년, 곡목: 꿈 세 마리).

〈박준호 기자〉

'크리스마스에는 사랑' 주제

제 8회 미러클 콘서트, 기부금은 Ktownhope 후원

제8회 미러클 콘서트가 남가주 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유스타미디어(대표 박상균) 주최로 열린 미러클 콘서트는 김철리 목사(베를린교회) 뮤지컬 디어의 오프닝 찬양과 박성근 목사기도로 시작했다.

이날 공연은 MBC 복면가왕에서 패널로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가수 김현철 씨가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자신의 히트곡과 찬양을 불

렀다.

또한 영엔젤스 어린이 합창단, K-팝 스타시즌 4 참가자 존 추, 소프라노 크리스틴 정, SBS 스타킹에도 출연해 유망성을 치르는 등 올해 열린 제 29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기타리스트 도경민(팀명 메론즈), 올해 미주에선 'Top 7' 수상자들인 문관우, 캐더린 김, 신소리, 이재우(Inputs) 등이 무대에 연이어 올라 '따로 또 같이' 호흡을 맞췄다.

이밖에도 고등학교 랍퍼 JADE(안준모),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정장철 담임목사(제3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 동상)의 무대가 선사됐다. 특별히 이날 콘서트는 다인종 농인들을 위해 수어찬양사 김은정, 김민경 씨가 이날 부른 노래 전곡과 함께 한국어-영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그룹 토이의 객원싱어 출신인 박상균 유스타미디어 대표와 장경철 목사의 무대예선 수어로 함께 찬양했다.

이날 콘서트는 콘서트에 찾아온 관객들에게 도네이션을 받았는데 기부금은 전액은 '자살방지' 등 정신건강 힐링 프로그램인 'Oh! Miracle'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Ktownhope를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박준호 기자〉

마음이 움직이면 지갑이 열린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밀레니엄들에게 재정 계획 수립에 있어서 박애주의적 목적에 따른 경비 소요는 실제적이고 우선순위가 된다. "관대함, 나눔"은 자신들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가 이어지는 연말을 맞으면서 어떻게 현명하게 기부를 할 수 있는냐는 문제에도 관심을 쏟는다. 기부문화가 갖는 크기에 상관없이 일반화된 미국의 행복관 고민이다.

서부교계 게시판



GMS 미주OMTC 선교사 훈련생 특별과정 일정 변경
2019년 GMS 미주 OMTC 6기 선교사 훈련생 특별과정 일정이 1월 28일(월)부터 2월 22일(금)까지 4주간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문의: (714)323-5011, 614-3666, 이메일 igmc21@gmail.com

미주장신 평신도 2기 모집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부설 미주장신 평신도대학이 2기생을 모집한다. 일정은 2019년 2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장소는 미주장신대학교 캠퍼스이다.
▲문의: (562)926-1023

제 16회 시각장애인 장학기금 마련 찬양의 밤
제16회 시각장애인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찬양의 밤이 12월 7일(금) 오후 7시30분 마음이가난한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 1818 S Western Ave, LA)에서 갖는다. 이번 찬양의 밤은 바트리로, 전 바디메오 중창단 하이테너 정화영, 대광 OB코랄이 출연한다.
▲문의: (213)352-2832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회 정기총회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회 송년모임과 정기총회가 8일(토)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해성 목사 1829 S. Western Ave. LA)에서 갖는다.
▲문의: (213)268-9367

나침반교회 창립20주년 기념 공연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는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무료 공연 '천로역정'을 9일(주일) 오후 3시와 6시30분에 갖는다.
▲문의: (562)691-0691

남가주사랑의교회 '로봇다리 세진이' 간증집회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로봇다리 세진이와 그리고 엄마(양정숙 여사) 간증집회를 9일(주일) 오후 1시10분에 갖는다.
▲문의: (562)400-5129

제11회 평화의집 음악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 11회 평화의 집 음악회가 9일(주일) 오후 5시 30분 갈보리장로교회(담임 김경찬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357-8986

라팔마연합감리교회 아동부 담당 사역자 모집
라팔마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에서 아동부 담당 사역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현재 신학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생이며 어려서와 신앙강중서를 16일(주일)까지 우편(8111 walker St. La Palma, CA 90623) 또는 이메일(kumc726@hot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714)226-0300

LA감사한인교회 부흥회
LA감사한인교회(담임 홍성화 목사)는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 초청 부흥성회를 6일(금)부터 8일(토)까지 개최한다. 시간은 오후 7시30분이다.
▲문의: (818)486-8284

사무직원 모집
동양선교회(담임 김지훈 목사)는 재정부 사무직원(파트타임)을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매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자격은 취입 및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엑셀과 워드(한글, 영문)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마감은 16일(주일)까지이며 이력서(PDF파일)는 이메일(omc.crucianus@gmail.com)으로만 받는다.
▲문의: (323)466-1234

하이어콜링 컨퍼런스
순무브먼트(구 KCCC)가 오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샌디에고 지역 타운엔드컨트리 호텔에서 한인기독교청년들을 위한 '청소년 하이어콜링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유진조 목사(웨스트처치), 데이비드박 목사(순회강사), 영리 목사(순무브먼트), 케빈영 목사(크루 하이스쿨 미니스트리)이다.
▲문의: (213)210-8248



제8회 미러클콘서트에 특별출연한 가수 김현철 씨가 찬양하고 있다(사진 전인준 제공)

preciousness(귀중함, 소중한), dearness(사랑스러움, 친애함, 귀여움), high price(고가)를 뜻했다. 이 단어가 기독교 신학의 3요소 중 하나인 믿음(faith), 소망(hope), 사랑(love)과 만나면서 고대 프랑스어인 'charite'에서 영어로 'charity'인 타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뜻하는 말로 바뀌었다.

크리스천들에게 장식, 쇼핑, 및 파티 이상의 의미 있는 성탄 시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선 즉 자신이 아닌 남에게 무한한 사랑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선이란 말은 라틴어 'caritas'에서 유래된 말인데, caritas는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보수와 진보 아울러 통일 준비…”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 정책토론회

한국교회가 통일 시대를 오롯이 맞이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새 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대북제재가 여전한 현실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교회가 슬기롭게 이끌기 위해서는 과학 및 보건을 중심으로 한 인적 교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은 30일 서울 종로구 성공회 대학교교회에서 ‘민의 참여를 통한 한반도 화해와 상생’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협력단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교단을 주축으로 민족화해와 민간교류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8월 발족한 협의체이며 첫 번째 사업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협력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지형은 서울 성락성결교회 목사가 ‘바람직한 남북 교류를 생각하며 한국 교회를 성찰함’이란 글을 통해 주제 발제를 맡았다. 지 목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독일 유학시절을 회고하며 동독 출신으로 독일 통일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베르너 크레첼 박사의 이야기를 인용했다. 지 목사는 “크레첼 박사는 통독 과정에서 서독 쪽이 저지른 뼈아픈 실수 중 하나를 언급했다”면서 “바로 동독 쪽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그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복음을 사회에 적용하는데 약한 한국교회의 특징도 언급했다. 지 목사는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복음의 개인적 정체성에 집중력이 유별나게 강하다”면서 “반면 복음의 사회적 연관성에 약하다”고 했다. 이어 “통일의 여정과 관련해 한국교회가 인도적 인도도덕, 창조 의 생태윤리,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 등을 혼란하지 않으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 목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큰 폭

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레아만 “독일보다는 어리둥절하지 않게, 점진적 평화적 접근을 상생의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요령이 필요하다. 엄주현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이 이에 대해 조언했다. 엄 사무처장은 먼저 북측의 니즈 파악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며 “북측은 공동번영을 위해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을 원한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체제는 과학기술을 도대로 지식경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이루겠다는 지침과 노선을 설정했다”고 소개하며 “보건부문 발전 중기전략계획 2016-2020을 발행했다”고 전했다. 이런 북측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일수록 추진에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엄 사무처장은 또 “특히 제재국면에서 인적교류는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과학기술 및 지식의 접목을 위한 인적교류 활성화 촉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북한 전역에 포진된 경제개발구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거나 “이전에 추진된 대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솔직하게 진행되고 북측 방향과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대표해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의 이창열 상근회담 대표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고려해 남북교류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국민적 공감대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구체화 할 것”이란 원칙론을 이야기 했다.

토론회에는 가톨릭 교회의 참여도 있었다. 대북사목을 해온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은 가톨릭 내부에서도 만연한 북한 교인들에 대한 회의주의를 지적했다.

“3·1운동 첫날 동시 거사, 사경회가 큰 역할”

‘3·1운동 100주년과 기독교’ 주제 포럼

3·1운동 첫날 평안남도 평양·진남포·안주, 평안북도 선천·의주, 함경남도 원산 6개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교계의 왕성한 사경회 등 대중 집회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덕주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3일 충남 공주제일교회(윤애근 목사)에서 열린 2018미래교회포럼에 주제 강연자로 참석해 “3·1운동 첫날 만세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 네트워크 덕분”이라며 “곳곳의 기독교 스테이션에서 이뤄진 사경회 등을 통해 기독교 지도부 인사들이 사전 정보 교환과 거사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일본 정부와 ‘정교분리’ 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다. 일본은 민족운동을 탄압하고 통제를 강화했지만 기독교 조직은 치외법권으로 남아 있었다”며 “이는 민족의식을 갖는 기독교인들이 비밀스럽게 독립운동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고 덧붙였다.

실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남강 이승훈 장로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조직한 사경회를 동시 포섭의 자리로 활용했다. 이 장로는 1919년 1월 28일 역시 민족대표인 양전백 목사와 함께 선천 남교회에서 열린 평북노회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매일신보에 실린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관련 기사를 읽고 독립운동을 논의했다.

해당 사경회에 대한 얘기는 양 목사의 취조서에도 나온다. 양 목사는 ‘사경회에 누가 모였는가’라는 예심판사의 질문에 “그때의 사경회는 성서 연구를 위한 회로서 목사가 30명가량이고 장로가

80~90명가량이며 신자가 1000명 가량 모였다”고 답했다.

미국 북장로교 관할지에선 이 장로를 중심으로 만세운동 논의가 이뤄졌다면 독립운동의 또 다른 축이었던 감리교는 박희도 선생을 통해 포섭이 이뤄졌다. 이 교수는 “후일 변절했지만 박 선생은 북장로교 전도사이자 서울YMCA 학생 간사, 영신학교 교감이었다”며 “교파를 떠나 다양한 기독교인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마침 1919년이 감리교 선교 100주년 되던 해였다. 미국 감리교는 남북전쟁 여파로 남교 스테이션에서 이뤄진 사경회 등을 통해 기독교 지도부 인사들이 사전 정보 교환과 거사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일본 정부와 ‘정교분리’ 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다. 일본은 민족운동을 탄압하고 통제를 강화했지만 기독교 조직은 치외법권으로 남아 있었다”며 “이는 민족의식을 갖는 기독교인들이 비밀스럽게 독립운동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고 덧붙였다.

실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남강 이승훈 장로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조직한 사경회를 동시 포섭의 자리로 활용했다. 이 장로는 1919년 1월 28일 역시 민족대표인 양전백 목사와 함께 선천 남교회에서 열린 평북노회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매일신보에 실린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관련 기사를 읽고 독립운동을 논의했다.

“한국교회 각 교단 뜻 모아 통일 이후 준비하자”

한국교단선교실무자대표자모임, ‘2018 통일선교포럼’ 열어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올해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을까.

한국교단선교실무자대표자모임(한교선·회장 김종국 목사)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남서울교회에서 ‘2018 통일선교포럼’을 열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 6곳의 통일·북한선교 정책 및 방향을 공개했다. ‘각 교단이 뜻을 모아 북측 통일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고신 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의 6개 교단 통일·북한선교 사역 및 계획이 소개됐다.

예장 합동·고신 합신, 기성, “통일 이후 전망 제시 집중”

보수적 신앙관을 가진 예장 합동·고신 합신, 기성 교단의 통일·북한선교 전략은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전망 제시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예장 합동은 교단 소속 통일준비위원회 활동 및 전망이 담긴 ‘2018 통일비전성명서’를 공개했다. 성명서에는 교단 차원의 통일 전문 비정부기구(NGO) 설립, 한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글로벌 통일네트워크 준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교회 재건과 대북지원에 나설 것도 시사했다. 성

명에서 예장 합동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된 조국과 무너진 제단의 수축을 위해 우리의 쓸 것을 드리며, 형제와의 동행으로 주어진 낯설음과 불편함, 가난의 고통이라도 즐겨 감당한다”고 밝혔다.

예장 고신은 현재 교단 내 ‘통일한국대비위원회’란 특별위원회를 두고 탈북민 학생 지원 및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교단은 통일한국대비위원회가 하는 일을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에 이관해 전문적으로 통일 전략을 연구할 계획이다.

예장 합신 역시 통일선교 분야

신천지, 민통선에 무단으로 ‘비석 알박기’

軍·지자체도 몰래 세우고 교주 등 비밀 행사도 개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비무장지대 인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에 여러 개의 조형물을 불법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도 철원에선 조형물 설치 후 신천지 신도들이 신분을 감추고 방문해 교주 이만희(87세)와 함께 행사를 개최한 사실도 밝혀졌다. 신천지의 위장 평화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 민통선 내 민북지역에 위치한 평화문화광장에서 ‘세계평화선언문비 제막식’을 열었다.

민북지역은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출입말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민간인통제선부터 남북한계선까지의 지역이다. 민간인은 군부대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문제의 비석에는 신천지가 2013년 발표한 ‘세계평화선언문’이 새겨져 있다. 한 지역 언론에 따르면 교주 이씨는 당시 “철원뿐 아니라 세계에 평화의 비가 세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석은 광장 중앙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돼 있다. 광장 관계자는 “비석은 광장 중앙의 평화문관에서 남서쪽으로 300m쯤 떨어져 있다”며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잘 보인다”고 말했다.

HWPL이 무단으로 비석을 설치한 곳은 강원도 소유지였다. 철원군 관광과 관계자는 “비석이 세워진 곳은 도 소유지를 철원군이 위탁 관리하는 지역”이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석이 언제 세워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사 및 허가 기록 자체가 없어 파악이 어렵다”며 “지난해 6월로 추정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철원군 관계자는 “행사를 개최하겠다며 공문을 보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이라는 단체에 수차례 철거 공문을 보냈지만 공문이 반송되곤 했다”며 “비석을 철거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WPG는

HWPL과 관련된 단체다.

민통선 내 출입을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군부대도 당혹스러워했다. 군 관계자는 “지나해 광복절 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에서 430여명이 참석해 비 제막식을 열겠다고 공문을 보내 허가한 기록이 있다”면서도 “군은 민북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

의 허가 여부만 판단한다”며 말을

는 교단 내 특별위원회인 ‘남북교회협력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위원회의 사업 분야는 ‘통일 사역자 양성’ ‘국내외 관련 사역자 후원’ ‘평화통일 및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 개최’ 등이다. 앞으로는 해당 위원회가 교단 세계선교회와 협력해 통일 관련 사업을 긴밀히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기성 교단의 통일선교 분야는 ‘북한선교특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 역시 교단의 향후 기구가 아닌 특별위원회인 까닭에 전망 위주로 활동 내용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과의 직접 협력관계 강화’ ‘북한성결교회 재건’ ‘대북지원사업 및 북한 내 사회봉사센터 건립’ ‘교단 북한자료실 설치’ 등의 9가지 북한선교 방향을 제시했다.

기감·기침, “국내외 선교단체 및 사역자와 연합해 활동”

기감은 교단 내 평화통일기관뿐 아니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교단 외부 협력기관과 함께 통일·북한선교를 펼치고 있다. 교단 내 평화통일기관은 선교국 국내선교부의 북한선교정책위원회와 사회농어촌환경부의 평화통일위원회, 서부연회, 남북교류

아졌다.

신천지 비석은 더 있다.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고성 민북지역에도 비석이 세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는 2010년 파주 임진각 무궁화동산에 ‘조국통일선언문’이라는 비석을 세웠다. 토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가 파주시와 2011년 8월 비석을 철거했지만 다시 설치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연호)가 지난달 지역 신천지 교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고성 통일전망대에도 비슷한 이름의 비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협력행동(한민족통일선교회), 북한교회북강리교회연합 5곳이다. 협력기관은 NCCK 화해통일위원회와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 (재)남북평화재단 3곳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9~11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담’ 내용도 소개됐다. 기감과 세계감리교협의회(WMC), 미국연합감리교회(UMC) 등이 공동 주최한 원탁회담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 등 관련 단체 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했다. 이때 채택된 애틀랜타 성명에는 전 세계 감리교인에게 ‘평화조약을 위한 협상 신속히 추진’ ‘경제 제재 해제 요구 청원’ ‘남북한 주민 간 관계 구축 노력에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침은 해외선교회와 국내선교회 두 기관이 공동으로 통일선교에 나서고 있다. 교단 내 선교단체 및 개교회도 관련 사역을 하고 있지만 주요 활동은 해외선교회가 주로 맡는다. 해외선교회 내에선 N.K 지부와 침례교 통일선교네트워크(N2KM)로 나눠 각각의 부서가 국내외 통일 관련 사역을 맡도록 했다. 교단 신학교인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북한선교학’을 가르치는 것도 특징이다.

했다. 다만 고성 비석은 사유지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비석을 철거한 후 ‘왜 비석을 철거했느냐’는 민원이 빚뚫었다”며 “지자체 입장에서 종교 간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신천지가 비석을 세운 민북지역은 군사상 요지이기 때문에 군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확인하는 것”이라며 “방문 주체와 목적을 숨긴 채 허위 신고를 한 행위는 군의 경제대세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천지, 교계 비난하며 위력 시위

2일 전국 주요 교회와 기독교단체 앞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교계를 비난하는 집회를 2일 서울과 수도권 인천 광주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교계 내 여성 인권을 제고하라고 주장했지만 내부 결속을 위해 전국 단위로 움직였다

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천지의 위장 여성인권단체 세계여성인권위원회는 이날 서울 시내 9곳에서 동시에 집회를 개최한 뒤 행진했다.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인원수만 5200여명이다. 신천지는 주요 교회 외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위치한 기독교연합회관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창천교회(구자경 목사)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세계여성인권위원회 소속이라는 여성들은 ‘한국 목사 각성하라’ ‘성추행이 웬말이냐’ ‘정지에 관여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웬말이냐’ 등의 팻말을 들었다. 이 단체 위원장은 “여성들의 인권 사각지대인 성직자들의 인권유린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며 “교회들이 한기총에서 탈퇴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교회들에게 한기총을 탈퇴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신천지 포교 전략 중 하나다.

교회는 발빠르게 대처했다. 교회 정문에는 ‘신천지를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이들은 이만희의 영생불사를 믿는 종교 사기 집단 신천지 신도다’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정문과 기둥 곳곳에는 CCTV 촬영 사실과 신천지 신도의 출입을 금지하는 팻말도 있었다. 교회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신천지 관련 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고 알려왔다”며 “성도들에게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신체 접촉 및 말싸움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귀띔했다.

교회 성도들은 실제 시위 규모가 신고 내용보다 훨씬 적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차 봉사를 하고 있던 한 성도는 “500여명이 온다고 신고했는데 실제 규모는 70명을 넘지 않아 보였다”며 “교회의 빠른 공지 덕분에 큰 사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성도는 “이만희 개인의 신격화를 강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신천지가 무슨 할 말이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구 광림교회(김정성 목사) 앞에서도 6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 교회 관계자는 “경찰 병력 150여명이 집회를 통제했다”며 “시위가 끝난 이후에는 신도 4~5명 이 교회 앞에서 한기총 탈퇴를 권유하고 강제계종을 규탄한다는 전단지들을 돌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영등포구 여의도침례교회와

서초구 소망교회 앞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가 열렸다.

신천지는 전국 각지에서 움직였다. 경기도 의정부와 용인을 포함해 인천과 광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교회도 있었다. 경기도 한 교회에서는 “시위 사실을 오늘 아침에 알았다”며 “이미 예배가 시작돼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광주 서구 광주CBS 방송국 앞에는 경찰차 산 500명이 집회를 개최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집회를 개최한 배경으로 내부결속을 꼽았다. 박형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장은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 사후 내세를 메시지 구축에 힘쓰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인권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신도들을 결집시킨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개교회 수준에서 대처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천지 집회에 대응할 수 있는 ‘만능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연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는 “교단 혹은 교회들이 신천지 집회나 행사를 대처하기 위해 공통의 대응 매뉴얼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교회 입구를 사람이나 차로 막는 행위 등은 예방방해 행위에 포함돼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집회나 예배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지하는 장면을 녹화하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이즈 남성 청소년층 급증…”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즈의 날’ 행사, 실상 적극 알리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디셈버퍼스트 행사를 개최하고 남성 청소년층에서 급증하는 에이즈의 실상을 보건당국이 적극 알리려 한다고 촉구했다.

안단한 HIV감염인 자유포럼 공동대표는 “중학생 때 친구를 통해 동성 간 성행위를 시작했고 군복무 시절 내무반에서 동기와 함께 성행위를 하곤 했다”면서 “크리스천이었지만 동성에 애플리케이션을 통

해 섹스 파트너를 구하는 등 쾌락의 세계에 점점 빠져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지난해 에이즈 감염통보를 받고 절망에 빠졌지만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인 김지연 약사와 면담을 갖고 내가 이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찾게 됐다”면서 “남성 간 성행위에 빠지면 에이즈에 감염되고 성병에도 쉽게 걸린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준명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는 “세계적으로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만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원인은 10~20대 남성 에이즈 감염자 급증에 있다. 보건 당국은 선진국처럼 남성 간 성

행위로 감염되는 에이즈 실상을 꼭 바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세습 재심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이 4일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지난 8월 7일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 재판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나 다음 달 열린 총회에서는 재판국원들을 불신임하고 명성교회 세습 적법 여부 판결을 다시 다루도록 했다.

이날 재심 심리에서는 원고 측으

로 김수원 신임 서울동남노회장과 목사와 이용혁 서기 직무대행 등이, 피고 측으로는 고대근 전 동남노회장과 김재복 명성교회 장로 등이 출석했다. 명성 측은 세습방치법 해석을 헌법위원회에 제의된 것을 이유로 해석이 나올 때까지 심사기일을 연기 신청했으나 재판국은 불허했다.

선교의 창 (114)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와 도발적 선교전략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평등하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 현실은 그러한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만도 못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 대다수가 바로 아프리카에 있다. 그곳은 태고적 원시 문명과 산업화 문명 그리고 초현대적 정보사회의 문명이 공존하고 있다. 벌써 주님 오신 이후 2천년이 흘렀건만 아프리카는 끝없는 고통 속에 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배경의 소위 선진국에서는 이들 나라의 문제들에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우주적 교회보다 그저 자기 교회 울타리에 갇혀 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실까?

우리들은 같은 하늘 아래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우주적이다. 복음이 민족과 국가의 테두리를 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프리카를 향한 선교의 여정을 돌아보고 새롭게 깨닫고 수정을 해야 한다.

2. 아프리카의 역사

아프리카의 역사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기독교의 전래와 이슬람화의 시기이다(AD 67-1500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도달해 뜻을 피었다. 이때는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클레멘스(Clemens), 교부인 오리겐(Origen), 기독교 변증가로 이름난 터툴리안(Tertulian), 성 어거스틴(Augustine) 등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출현하여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정

고통을 가져오는 실마리가 되었다. 그것은 유명한 아프리카 식민지 정탈을 위한 자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3. 아프리카의 당면 과제

아프리카에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저개발 지역이다. 비단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영적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빈곤의 악순환이다. 수많은 이들이 기근과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다. 상대적 빈곤이라기보다는 절대

아프리카는 예나 지금이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고요한 아프리카 땅을 침탈한 세력들은 서구의 기독교 국가였다.

기독교 배경의 부강한 나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선을 베풀 때가 되었다.

립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그곳의 교회는 AD 639년부터 시작된 이슬람 군대들의 공격을 받고 전멸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이슬람은 약 AD 1500년까지 북부 아프리카는 장악해 왔다.

둘째로 서구 세력에 노출된 시기이다(1500-1800년). 지리상의 발견은 선교보다 아프리카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예무역 때문이었다. 유럽인들은 몇몇 부족들을 이용하여 다른 부족들을 사냥하는 식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전통 질서를 깨고, 유색인종들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심게 되었다.

셋째로 식민지 정탈전과 개신교 선교시대이다(1900년대 이후). 아프리카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는 모라비안 선교회 소속 조지 슈미트였다. 본격적인 아프리카 내륙의 선교는 1840년을 기점으로 하는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의 내륙탐험에 힘입게 되었다. 그는 1855년까지 아프리카 남부에서 시작하여 서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육로를 찾아내어 아프리카 내륙 깊게 뚫리 복음이 전달 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자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리빙스턴 및 동시대의 탐험가들의 발견과 그 보고서들은 한편으로 또 하나의 아프리카 역사상 씻을 수 없는 뼈아픈

적 빈곤 속에 있다는 것이다. 영양실조로 인한 짧은 수명, 사방물의 급상승, 높은 실업률 등은 이 지역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둘째는 의료 환경이다. 아프리카 에이즈(HIV)는 이 대륙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사하라 이남의 성인 중 10% 정도가 감염되어 있다. 지난 2000년까지 1370만 명이 이 병으로 죽었다(Operation W. 자료). 이 밖에 말라리아 등 토착 질병으로 인해 사망자는 셀 수가 없다.

셋째는 정치의 취약성이다. 정치가 불안정하고 독재문화가 팽배하기에 부정부패 속에 사회가 불안정하다. 끝없는 종족분쟁과 쿠데타, 장기 독재가 판을 치고 있다.

넷째, 교육시스템의 부재이다. 아프리카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서부 아프리카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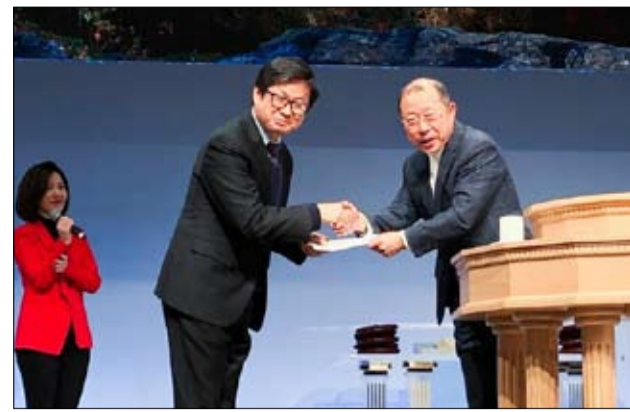
다섯째로 이단들의 득세이다. IS 같은 극한 무도한 세력이 금권과 관권을 동원해 치고 내려오고 있다. 저들은 옴마 공동체를 지향하기에 한 번 탈취하며 다른 종교가 설 자리가 없다. 이 밖에도 종교혼합주의와 이단종파들이 우는 사자처럼 기세를 부리고 있다.

4. 도발적인 선교 전략

그간 기독교 선교는 검은 대륙을 죄와 사망 그리고 인간의 사슬로부터 해방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이는 밀물처럼 남하하던 이슬람을 저지하며 노예무역을 중지시키고 아프리카를 해방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의 문명 퇴치와 기근과 의료 환경 개선 등에도 공헌하였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에도 아프리카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밀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그 때 뿐이다. 한이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 선교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기존의 사역패턴을 지속하되 이제는 이슬람권의 전략처럼 국가차원에서 나서는 것이다. 즉, 기독교 배경의 선진국들이 아프리카 나라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총체적으로 돕는 것이다. 국력에 비례해서 미국같이 힘이 있는 나라는 여러 나라, 한국 같은 한 개 나라 등을 분담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상대 나라가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기틀을 세워주는 것이다.

이 때 조심할 것은 19세기에 유럽 제국주의 식민통치식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그리스



안인권 목사(오른쪽)가 정승호 목사에게 구호금을 전달하고 있다.

새소망교회 바자회 수익금 2만불 전달

KAFHI 통해 인도네시아 팔루 쓰나미 피해지역에

메릴랜드 새소망교회(안인권 목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 2만 달러를 KAFHI(국제기아대책)에 전달했다.

이번 구호헌금을 마련하면서 안인권 목사는 새성전 마련으로 성도들이 많은 헌신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큰 감사의 열매를 드리게 돼서 더욱 고맙다는 말을 성도들에게 전했다.

구호헌금을 전달받은 KAFHI 사무총장 정승호 목사는 "어려운 중에도 더욱 큰 복음의 통로가 되어, 감사의 씨앗을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심어준 새소망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새소망교회는 갑자기 찾아온 동부의 폭설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했으며 이번 구호금은 지난 9월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팔루지역 지진 및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된다.

피해상황(2018년 10월 22일 기준)은 사망자 2,256명, 실종자 5,000명 이상, 부상자 10,000명 이상 피해총액 13조8천200만 루피아(약 9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실종자 수색을 10월 12일에 공식 중단했다. 이에 따라 긴급구호 사역도 구호개발로 전환돼 진행 중이다.

현재 국제기아대책(FHI)은 긴급구호를 구호개발로 전환하고 한인간리교회(KMCO)와 UMCOR 등과 인도네시아의 교회 복구, 임시숙소(shelter), 식수(Clean water), 학교복구, 상담 심리 치료 등 마을 단위의 구호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락처: (703)473-4696, shchung@fh.org 정승호 목사

(기사제공: KAFHI)

“중국 선교사 추방사태 대안은 재배치”

한국외국관리재단 포럼, “단기로 전환, 전략적 재배치 시적”

중국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는 4000여 명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인 선교사가 활동하는 나라다. 한국인 선교사가 많은 필리핀과 일본의 선교사들이 1500여 명 수준인 걸 고려하면 압도적 1위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중국 선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선교사 추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기독교인의 급증을 위기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반복되는 추방의 이유”라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침례교회에서 한국외국관리재단(KCMS·이사장 김복권) 주최로 열린 위기관리포럼에서다.

중국의 종교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한 홍순규 KCMS 사역국장장은 “2017년 기준으로 중국 공산당원이 8875만 명인데 기독교인의 수가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일부 통계들이 있다”면서 “심지어 공산당원 중 기독교인이 나오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형국”이라고 했다.

(14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후 8:00(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p> <p>www.thank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8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p> <p>담임목사 : 박은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나성제일교회</p> <p>담임목사 : 김문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p> <p>담임목사 :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찬양예배: 오전 5:3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교회: 오전 9: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www.nachimban.org</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A Irvine, CA 90026 facebook.com/srcca</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 노장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찬양예배: 오후 1:20 영양예배(영성/KDC, 킹덤도움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lagoc.org</p>	<p>대중장로교회</p> <p>담임목사 :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유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goc.org</p>	<p>디아스포라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우리의 동행을 위해 일하는 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부 팩스 발송),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p> <p>www.mpcia.org Tel: (213)387-9425 / Fax: (213)381-2535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p> <p>담임목사 :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후 6:00</p> <p>Tel: (310)749-4756 2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베델인교회</p> <p>담임목사 : 김한요</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kb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kbc.org</p>	<p>LA 복음연합감리교회</p> <p>담임목사 : 김효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름다운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p> <p>Tel: (323)641-0691 / ys2104@hotl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웨스턴교회</p> <p>담임목사 : 정상기</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818)634-2315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p>얼버인침례교회</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예배: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p>	<p>일서크리스천교회</p> <p>담임목사 :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후 6:00</p> <p>Tel: (310)748-7274, Fax: (310)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안인교회</p> <p>담임목사 :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온라인성경기도회: 365일 24시간</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church.com</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ocj.org</p>	<p>중은마음교회</p> <p>담임목사 :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수요예배: 오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org / e-mail: pastor@laccornestone.com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v.com / e-mail: pastor@lac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p>	<p>토렌스주인교회</p> <p>담임목사 :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침례대방회: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66-4400 Fax: (718)86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선교 편지

케냐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이사야 62:2 하-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문안드립니다.

나이로비에서 사역지로 가는 약 30km 정도는 비포장도로이어서 다니면서 허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 안식년을 떠나기 얼마 전부터 카운티 정부에서 그 길을 다시 닦을 준비를 하고 있기에 몇 년을 걸리리라 생각했는데 사역지에 돌아오니 완벽하지는 않지만 도로가 포장되어 훨씬 편하게 다닙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돗물 없이 힘들게 지내다가 안식년 가기 전에 수도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교장, 선생, 학생들이 같이 수고하여 나무를 많이 심고 물을 주어서 부엌 쪽으로 나무가 많이 자라 더운 이곳 마싱가에 시원한 바람을 주어 더위를 식히고 힘을 줍니다. 10년 넘게 몇천 그루를 심고 물을 주었는데도 나무가 거의 죽어 그 수고가 값없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봅니다. 이제는 혼자만 아니라 같이 수고하여 일을 이루심을 봅니다.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는 AIC 교단은 5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는데 금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장로들을 뽑고, D.C.C. (시찰회)의 회장과 임원, R.C.C (노회)의 임원, A.C.C. (대회)의 감독과 임원, C.C.C. (총회)의 총회장과 임원을 뽑는데 11월 16일에 지역교회 장로들을 뽑았고, 20일에 D.C.C. 회장과 임원을 뽑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이 잘 진행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들이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싱가 신학교

마싱가 신학교의 일반과정 신학생은 26명이고 특별과정의 학생들은 35명, 모두 61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학교는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아 힘들다고 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 학교의 일부분의 울타리를 시작했는데 학교 이사회에서 학교 전체에 울타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10월 14일 현금을 했습니다. 이날 아타 대회의 감독, 마싱가 노회의 노회장과 목사들, 그리고 카바라 대학교의 교목으로 있는 무투쿠 목사가 설교를 하고, 마싱가교회, 마싱가 타운교회, 그리고 키이마니교회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린 후 헌금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물이 필요하지만 오전불 정도 모금되었습니다. 신학교 전체에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학교는 11월 15일 종강을 하였습니다. 22일에 종강할 계획이었는데 마싱가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리사 쪽으로 위치한 무잉기에서 분교식으로 계절학기 수강을 요청해서 한 주간을 단축하고 4명의 선생님들이 16명의 학생들에게 19일부터 두 주간 강의를 하였고, 특별과정의 수업은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 종강파티 없이 지내다가 종강파티를 했습니다. 염소 한 마리, 밀가루, 기름 등을 사서 짜파티, 염소탕, 염소구이, 양배추볶음, 쌀밥, 음료수를 35명의 학생, 교사, 직원들이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날 늘 음식을 해 주는 사람은 학생들이 해 주는 음식을 먹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면서 음식을 대접받아서 감사하다고 감격해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

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돈이 없어 학비가 많이 밀린 신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힘써 공부하며 복음을 전하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자기 교회를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목사들도 누군가의 관심과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2012년에 졸업하여 마싱가에서 3시간 떨어진 메루에서 사역하는 조나단 목사는 2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메루에도 신학교 분교가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방문을 못 하지만 졸업한 많은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을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나 24명의 학생들,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있는데 교실이 부족해서 더 지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에이커의 땅에 초등학교 건축할 설계도를 만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헌금을 해주셔서 기초공사를 할 줄, 벽을 쌓을 줄과 모래를 싣고 돌을 깔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실 4칸을 지으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 선교 세미나

지난 2016년에 29명의 신학생들과 선생이 카이로스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함께 공부한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여 내년 1월 초에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 것이 좋다고 소문이 나는지 교장이 먼저 요청을 하고 선생들도 하자고 합니다. 일반과정 특별과정과 무잉기 분교의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79명 다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숙소 문제, 음식 여러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일반과정 학생과 특별과정 3학년, 선생님들 해서 약 36명만 먼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성령과 학교의 바람이 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10월말이 되면서 우기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두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는 창틈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벌레, 모기이고 둘째는 정전이 됩니다. 그냥 한두 시간 전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나가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못 먹게 됩니다. 누구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불평하는 사람도, 신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들 예복이는 커네티컷에 살고 있고 손녀 슬아는 지난 추수감사절에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딸아이들은 필라델피아에 잘 적응하고 있고, 지혜는 새로운 공부를 하느라 애쓰고 있으며, 미해는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강의, 초등학교 건축, 교회 방문에도 잘 할 수 있고, 영, 육간에 건강하게 많은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입니다.

- 마싱가 신학교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들을 길러 내고 미전도 종족을 향한 기도와 선교의 열정을 갖도록
- 신학교 전체에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
- 유치원,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닦는 아이들이 되며, 선생님들을 위하여.
- 현직인 선교사 훈련원이 빠른 시일에 시작해서 신실한 일꾼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 초등학교 건축을 위해서
- 내년에 있을 카이로스 선교 세미나를 위해서
- 가족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큰 은총과 형통하심이 있기를 소원하며, 가정과 교회 위에 좋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 12월 이사야, 이애경 선교사 드립니다.
isaiah.lee@aimint.org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만성기침

8주 이상 이유 없이 기침이 계속될 때

S씨는 40대 중반으로 다운타운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다. 6개월 전부터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기침 치료용 물약을 먹었다. 그때마다 기침은 일시적으로 멎었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기침이 재발했다. 점점 기침이 심해져서 잠을 잘 때도 기침 때문에 몇 번이나 깨고 가게에서도 기침 때문에 일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특히 기침 때문에 교회 성가대를 더는 할 수가 없었다. 병원에 몇 번 갔는데 알레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알레르기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S씨는 과거에 아무런 질병도 없었고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건실한 가정이며 주일예배를 빼먹지 않는 신앙인이다. 지금 사는 주택은 지은 지 5년 되는 집이고 집안에 애완동물도 키우지 않았다. S씨를 검진해보니 혈압은 정상이고 폐음이 약간 감소한 것 이외에는 모두 정상이었다. 흉부 방사선 소견도 정상이었다. 폐 기능 검사상 폐 기능이 약간 감소해 있었지만 기관지 확장제를 주고 나서 폐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S씨는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을 받았고 천식 치료 후 곧 기침이 멎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S씨의 증례는 경증천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호흡근관 없이 마른기침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감기나 알레르기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폐기능 검사를 해야만 정확하게 진단 할 수 있다.

만성 기침은 다른 원인이 진단되지 않고 8주 이상 기침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부비강염으로 인해서 분비물이 목 뒤로 흘러 내려가면서 폐로 들어가는 경우다. 또 위산이 역류해서 기관지로 넘어가는 경우도 만성 기침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흔한 원인이 위에서 언급한 천식인데 비교적 흔하지만 제대로 진단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만성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확장증, 폐결핵, 폐암 등으로 만성 기침을 할 수 있고 고혈압약도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알레르기로 인한 기침인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나 코에 뿌리는 분무제를 쓰면 되고 위산 역류로 인한 경우는 제산제를 쓰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천식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를 함께 써야 한다. 또한 복용하는 혈압약이 있다면 기침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0년 이후 매년 1000여명 은퇴자 쏟아져

통계로 본 한국 선교사들의 삶

199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30~40대 선교사들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로 앞다투어 떠났다. 한국선교연구원(KRIM)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다. 1990년 1645명이었던 해외선교사는 지난해 2만1220명으로 12배 넘게 증가했다.

20여년 지난 오늘날 당시 파송된 선교사들은 은퇴를 바라보고 있다. KRIM이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대(28.4%)와 60대 이상(7.2%)을 합치면 35%를 넘는다. KRIM은 “이 추세면 2020년에는 65세 이상 선교사의 비율이 1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부터는 매년 1000여명의 선교사가 은퇴한다고도 예측했다.

한국교회는 그러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은퇴 이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선교사는 2010년 1174명,

2011년 1317명, 2012년 1411명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2014년부터 1000명 이하로 줄었지만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60세 이상 선교사를 포함한 노인인 건강한 노후를 보내며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을 활용해 제2의 삶을 살아가도록 경기도 가평에 ‘생명의 빛 홈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을 2015년 시작했다. 재단은 은퇴 선교사들의

영성과 경험, 노하우를 활용해 다문화가정 등 소외된 곳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유권신 밀알복지재단 교회협력실장은 “생명의 빛 홈타운 사업은 한국교회가 당연한 선교사 은퇴 후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은퇴 선교사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13면에서 계속>

그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저장성 원저우시 시민 15%가 기독교인일 정도로 중국 복음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기독교를 철저히 관리하는 걸 골자로 하는 ‘기독교의 중국화’가 진행되는 증거가 바로 선교사 추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규정했다. 끝으로 “선교사 추방 유형도 ‘대규모’, ‘일말탄식’으로 이미 변했다”면서 “한국 선교계도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려했다.

총회세계선교회(GMS) 소속 지호길 목사는 “추방 선교사”라는 용어 대신 ‘하나님이 재배치한 선교사’를 사용하자고 했다. 전략적인 재배치를 위한 계기로 삼자는 의미다. 그는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선교사 추방은 한국교회의 전략적 실수도 아니고 선교사 개인의 보안 조치의 실수로 발생한 일도 아니다”면서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

하고 전략적 선교사 재배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배치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 중국’에 두라고도 제안했다. 지 목사는 “추방된 선교사 37명 이상이 참여해 새로운 지부를 구성하고 원거리 중국 선교를 위한 ‘전략적 국가’로 재배치해야 한다”면서 “이미 해당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2년 유예기간을 둔 뒤 지역 선교부에 가입하도록 하는 운용의 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중구 빌리온선교회 대표는 “중국 선교사 파송을 지속하되 장기 대신 단기 선교사 파송에 역점을 두라”고 주문했다. 그 또한 “선교사 추방의 방편인 중국의 ‘신종교 사무조례’를 넘어설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인턴 선교사를 지속해서 파송해 언어와 문화 훈련을 시키면서 선교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마귀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3)또한 마귀는 사랑의 “배신자”입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배반해 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은 사랑의 배신자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여러분도 사랑의 배신자가 됩니다.

(4)마귀는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 질투, 잔인성은 곧 마귀의 것입니다.

(5) 끝으로 마귀는 곧 “불법자”입니다. 죄를 한 마디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 사회적 죄, 개인적인 죄 전체를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법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2)“멀하려고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멀하려 하심이니라”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마귀의 일을 멀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1)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마귀의 일을 멀하시는데 있어서 그 방법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므로 화복하시고 타락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환상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라나는 화조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를 그 마음(믿음)의 귀로 듣고 마음(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마귀를

멀하신 예수님의 생명 받아 그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발견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참된 신령한 환상을 봅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죽음을 멀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음에 직면하면 그 죽음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15:55).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때에는 사랑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고전15:5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죽음을 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멀하신” 첫째 뜻입니다.

(2)예수는 또한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빛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법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환상이 없으나, 생명이 있는 곳에 환상이 있습니다. 빛 있는 곳에 식별력이 있으므로 빛은 안내자입니다. 그러므로 빛있는 곳에는 방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 생명 속에 빛을 가져오므로 마귀의 일을 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캄캄한 암흑(죄악)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죄는 쫓겨나옵니다.

(3)예수는 미움(증오)을 멀하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심령 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미움을 멀하십니다. 자비, 착한 마음, 자기희생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미움을 이기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 예

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빛이 싫고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면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립니다.

(4)예수님은 불법을 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웃을 봉사하며, 자기를 희생하게 일을 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캄캄한 암흑(죄악)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죄는 쫓겨나옵니다.

(5)예수는 미움(증오)을 멀하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심령 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미움을 멀하십니다. 자비, 착한 마음, 자기희생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미움을 이기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 예

유하게 하고 내 속에 왕좌를 정하시고 항상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멀하시니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어두움, 미움과, 불법을 멀하시고 그 자리에 생명과, 빛과,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주십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멀하시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는 때 크리스마스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는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서 참 신자답게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35)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업법과 성경적 원리 (2)

A. 유죄(Guilt)와 유책(Culpability)

손해 배상의 원리와 여타 보상의 원리는 잘못 또는 과실이라는 도덕적으로 규정된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잘못 또는 과실이 의미하는 바는 한 개인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간에 타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한다는 것이다. 형법에서는 그 잘못을 유죄(Guilt)라고 하고, 민법에서는 유책(Culpability)이라고 부른다.

B. 무과실 책임(완전책임, 절대책임)

계약법이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법의 다른 관련 분야들은 과실과 잘못을 따르는 원리

차 사고와 공산품 판매에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에 관한 무과실 책임 제도는 부분적인 무과실 책임 제도일 뿐이다. 소형 사고의 경우, 피해자 측의 보험 회사는 각 당사자들의 과실이나 잘못을 조사하지 않은 채 손해를 변상한다. 과실이 없는 당사자는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보험금에 무조건 동의해야만 한다.

그러나 전형적인 무과실 책임 법령에서는, 만일 손해 합계액이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전통적인 과실 책임 이론에 호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과실 책임 제도가 중대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아직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민30:1-2, 레27:2, 신23:21-23).

성경 속의 인물들은 서로 계약을 맺을 때에 종종 반드시 지켜야 할 맹세를 수반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우물의 권리에 관하여 맺은 약정 즉 계약은 창 21:27-31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와 비슷한 약정과 맹세가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도 맺어졌다(창26:23-33).

많은 현대의 계약법이 한 번 맺은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기본적인 성경 법칙과 일치한다. 만일 약속이 지켜질 필요가 없다면, 계약을 어기거나 깨는 것(즉, 불이행)에 관한 논의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행위 능력(Capacity), 강박

무과실 책임은 관습법(잘못 있어야 책임발생)에 잘 나타나 현대 계약법은 '꼭 지켜야한다' 는 기본적 성경법칙과 일치

에서 벗어나 무과실 책임이라는 개념을 따르고 있다. 무과실 책임(완전책임 또는 절대책임)이라는 개념은 관습법(Common law)에 잘 나타난다. 관습법에서 본래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부과하였다.

책임을 부과되는 전형적인 예는, 폭파 회사나 야생동물을 소유한 서커스 회사의 경우이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거나 사자 쇼를 하는) 그들의 행위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상이다. 관습법은 잘못이 있어야 책임이 발생한다는 기초의 요건 위에 새로운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산업 재해 분야의 미국 법률은 살펴보면, 직무 수행 도중 사고로 근로자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고용주에게 완전 책임이 부과된다. 설령 종업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 그 결과 무과실 책임제이다.

최근에는 무과실 책임 개념이 자동

공산품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는 법률 자체가 과실자체에 기초로 하지 않고 있다. 이 법률은 공산품 사용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제조업체의 책임은 부주의(Negligence)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 제품을 구상하고 생산하는 데 제조업체들의 부주의가 무엇인지 입증해야만 한다. 부주의라 함은 비슷한 상황에서 신중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체는 제품 계획, 생산과 검사, 경고 및 지침에 충분한 주의를 다했다고 입증하기만 하면 부주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소송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C. 자유롭게 맺은 협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원리는 사람들 사이의 서약, 맹세, 계약(협정)에 관한 성경의 관습들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서약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헌신하기로 하는 약속이다. 서약에 관한 구약 성경의 법칙들은 민수기, 레위기, 신명

(Duress), 부당 압박(Undue influence)이라는 개념은 계약에 대한 기초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잘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계약을 맺는 자의 행위가 법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거나 미숙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행위 능력에 관한 법칙은 미성년자의 경우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을 만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론 하에, 실제로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무효화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더구나 약속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덕적 유책성은 계약 체결에서 있을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현대 계약법은 계약을 강요당하거나, 타인의 강력한 의지로 자신의 의지가 묵살되는 경우와는 '잘못'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강박 계약이고, 부당압박이라는 것이다.

중으로 위협을 받아 계약을 맺은 사람이 강제로 맺은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dr.jameskoo@yahoo.com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월 솔로몬 왕에게 와서(왕상7:13-19)

솔로몬은 다시 성전건축으로 돌아가 어떻게 성전이 건축됐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기 가진 달란트대로 충성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 람을 보내 두로에서 허람이라는 놋으로 기둥을 만드는 기술자를 데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필요한 달란트와 재능을 주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문에 성도들은 부지런히 자기가 맡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달란트는 오늘 내 앞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봉사로, 어떤 분은 격려와 위로로,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분은 구석구석 잘 보수하고 잘 고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된 일꾼의 자세입니다.

화 그 이름을 아긴이라...보아스라 하였으며(왕상7:20-22)

하나님께서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외적으로는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내적으로는 순결한 믿음을 갖도록 세우십니다. 우편, 아긴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좌편, 보아스 "그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양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안정

성을 상징하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신앙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음부에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에서 때면 때이고 쫓겨나 버리는 천국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아긴과 보아스와 같이 기둥 같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왕상7:23-26)

본문에 못바다를 부어 대야를 만들었습니다. 둥근 못바다와 같은데 길이가 4.5m 높이가 2.3m 정도 됩니다. 발집대로 소가 동서남북으로 셋씩 바치고 있고, 바다의 두께가 손 끝이 만만해 가는 백합화 식양으로 돌렸습니 다. 그 대야는 이전부터 46,000리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못바다는 성전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큰 대야입니다. 이 대야는 역대하 4장 6절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

장들이 성결케 하시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야를 받치고 있는 열두 소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고 소는 충성을 상징합니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백합화로 돌렸는데 성도는 항상 순결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진정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신앙을 지키며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목 또 못으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왕상7:27-44)

본문은 물두멍과 받침대에 대해 살펴봅니다. 29절, 36절, 38절에 계속 받침대와 물두멍에 대해 반복됩니다. 사각형 받침대는 가로 세로 2m 높이가 1.5m 정도. 물두멍은 40방, 약9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모세의 성막시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족을 씻기 위해서 사용했는데(출 30:18-21), 솔로몬 성전에서는 번제물을 씻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대하4:6). 하나님 앞

에 예배하는 성도는 항상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받침대와 물두멍에 새겨진 사자는 승리를, 소는 충성을, 그룹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종려나무"는 "왕을 맞이할 때 쓰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영"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돼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승리와 기쁨과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금 이 모든 그릇들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왕상7:45-48)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빛난 놋"입니다. 놋은 당시 아주 중요한 금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늘 빛이 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최선을 다할 때 어둠을 가든지 반짝 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부는 모두 금으로 덮였고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전은 외부에는 빛이 나고 내부가 전체적으로 금으로 덮었다는 것입

니다. "금", "정금"은 "순전성"과 "고귀함" 그리고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순결함 그리고 그분의 불변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고 늘 순결하게 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토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왕상7:49-51)

성전 내부는 모두 금으로 덮였습니다. 금을 찌꾸라는 것은 문과 문을 이어주는 고리 같은 것인데 나무속이나 문지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 내부는 정금과 같이 순결함과 고귀함과 믿음으로 무장돼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도 금으로, 받침대도 금으로 만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늘 진실하고 거룩하며 오직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늘보

좌에 상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책상도 모두 정금으로 만든 것은 날마다 말씀을 먹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것은 성전 내부를 밝히는 "정금 등대"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환히 켜져 있었습니 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릴 때까지 그 빛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외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Kumran, Roman Catholic, etc.

인/터/뷰

은희곤 감독(기감 미주자치연회 감독, 뉴욕참사랑교회 담임)

“공평한 행정 통해 모범적 연회로 운영할 터”

은희곤 목사(뉴욕 참사랑교회 담임)가 지난 11월 25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미주자치연회 감독에 취임했다. 은 목사는 지난 5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기감 제 26회 미주자치연회에서 신임 감독으로 선출됐으며, 11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해 2년간 미주자치연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본지는 은희곤 목사의 감독취임을 축하하며 인터뷰를 통해 미주자치연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본다.

1. 감독 당선 소감

과거의 갈등과 분란을 모두 해소하고 미주자치연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주자치연회는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두 번의 감독 선거를 경쟁 없이 추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미주자치연회 회원들의 하나된 마음과 지지 속에 감독의 중임을 맡게 돼 우선 무겁고 떨리는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연회원들이 보내준 지지와 격려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독은 연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주자치연회가 지금의 모습처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교회와 연회원들을 섬겨나갈 것입니다.

첫째는 공평한 행정을 통해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주의 목회현상은 한국과는 크게 다르고, 교회나 연회원의 사정도 각기 다양합니다. 말하기보다는 경청하고, 앞장서 가기보다는 보폭을 함께 맞추는 감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서 미주자치연회를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감리교회가 지금 법적인 문제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법과 질서가 존중되지 못하는 현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미주자치연회는 해외에 설치된 연회지만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모범적인 연회로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리교회의 정신과 전통이 살아있는 연회,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일에 앞장서는 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기감 연회 및 미주자치 연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현재 한국 국내는 10개 연회, 해외는 미주자치연회 1개 연회, 감독이 없는 2개의 선교연회인 호남선교연회와 서부선교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11개의 '정연회'와 2개의 '선교연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 11개의 정연회당 1명의 감독이 선출되어 각기 맡은 연회

들을 관리, 운영합니다. 연회 아래 240개 지방, 7,000 교회, 12,000명의 교역자, 710가정, 1,263명의 선교사(교역자들만), 교인은 150만명입니다. 이 가운데 미주자치연회는 미국, 캐나다, 남미 일부를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19개 지방, 교회 320개, 교역자 400여명, 신자 2만5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주자치연회 안에는 대표적 기관으로서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임승호 목사), 선교훈련원(원장 정승호 목사), 기독교교육연구소(소장 강해영 목사) 등과 다수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미주자치연회는 미주선교연회, 미주특별연회를 거쳐 2017년 기감 임법총회 때 미주, 캐나다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법



제 4차 산업혁명시대 안에서 장, 단기 발전과제 설정 한반도평화통일 위원회 조직 · 깨끗한 선거제도 정착

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 "미주자치연회"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은 2년에 1회 입법회의로 모여 수정 보완해 나가게 됩니다. 한국 기감 총회도, 미주자치연회도 짝수 해(예, 2018년)는 감독 선거, 취임 등등의 행정 총회(10월), 행정연회(5월)를 하고, 홀수 해(예, 2019년)는 입법총회(10월), 입법회의(1월)로 모이게 됩니다.

3. 향후 2년간 미주자치연회를 이끄실 계획과 비전

1)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의한 공정한 행정이 이뤄지는,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의로운 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미주자치연회의 장, 단기 발전 과제들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인원, 결산들이 눈에 뜨게 줄어가는 1세대 한인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1.5세, 2세대들이 중심이 되는 차세대 한인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미국 캐나다 남미 등 지역과 그 안에서 앞으로 생존하고 자라나야 하는 이민교회와 사회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해결 대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신학적 틀만이 아니라 사회학과 미래학을 적극 연계하여 종합적 시각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켜 나가면서 동시에 이미 시작된 제 4차 산업혁명시대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조망해 보고 실천과제들을 예견,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3) 미주자치연회 안에 한반도평화통일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반도가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통일을 이뤄내야 하는 민족적 과제와 염원을 시대적 사명으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제교단인 미연합감리교회의 평화위원회와 협력, 연구하여 교회의 실천 과제들을

개발하고 나누며 동참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4) 감독선거 제도를 수정, 보완, 개선하여 바르고 깨끗한 선거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대 박효성 감독, 3대 저는 추대되었습니다. 이제 제 임기가 끝나 2년후 제 4대 감독 파는 선거를 통하여 감독을 선출합니다. 이때 선거의 고질적 병인 금권 선거, 청탁 선거를 철저히 배제하는 방안의 선거제도를 1차 자치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년 1월에 입법의 회에서 이를 수정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감독 후보도, 선거 유권자도 누가 될지 모른 채 감독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덕스럽지 못했던 선거 고질병들이 사라질 수 있리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미자치연회의 선거법과 이의 실천이 한국과 미국 교계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아울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4. 더 부연하고 싶은 말씀

오늘은 세속화,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등등이, 앞으로는 어떤 또 다른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 교회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세상의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신앙의 선명성과 정결성을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빼앗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여 우리를 항상 시험하고 유혹했고,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절대적 진리를 반드시 복음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두운 곳을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율법이라면,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빛 가운데로 가면 당연히 어두움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 공존 불가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항상 빛 가운데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당연히 세상의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당연히 사단과 마귀와 영적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을 이

기는 사단의 영은 존재하지 않기에 영적 충돌은 신앙의 승리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이건 그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령과의 영적 합일의 길을 시대와 사람들과 아합하지 말고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 신앙과 교회의 본질이 지켜지게 됩니다. 교회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5. 이력(신력) 및 가족소개

저는 어릴 때 교회 부설 유치원을 다니면서, 가족들 안에서 처음 교회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어 영적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저를 출발점으로 복음의 씨앗

을 삼으셔서 당신의 계획대로 가족들과 친지들을 빼집음이 모두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 가문" 출발입니다. 이후 저는 목회와 가정의 삶에 5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입으로 중얼거리며 다녔고 강단에서 선포하며 삶으로 살았습니다.

1)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2)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3)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다. 4)하나님 맘에 안 들면 모든 게 끝난다. 5)작은 일에 충성하라. 보다 큰일을 맡기시리라!

오늘을 있게 하신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2002년 1월에 케네디 컷 그레이스한인교회로 부임하면서 이민생활을 시작하였고, 2009년 1월에 현 참사랑교회에 부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처, 우경희 사모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와 보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치원 원장을 지냈고, 교회와 가정에서 항상 잔잔하게 목회를 뒷바라지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아이들의 자랑이요 긍지입니다. 큰 아들 은현빈 집사는 케네디컷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꽤 큰 IT회사 경영인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선교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 은한빈 목사는 케네디컷 주립대학교, 드류 신학대학원(MDV), 프린스턴 신학대학원(STM)을 졸업하고, 현재 미연합감리교회 뉴욕연회에 속한 Wallingford First Methodist Church(CT)에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내일을 "도전과 꿈"으로 채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보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희곤 감독은 감리교신학대학, 연세대연한신학대학원, 감신 박사원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목회와 선교국, 연회에서 사역하다가 도미, 그레이스한인교회를 거쳐 현재 참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케네디컷교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미주자치연회 감리사 및 미주감신이사, 현재 부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카무카무 우에"(2018, 올리브나무), 편저로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선교"(1.2.3)(1997, 1998, 1999, 도서출판 서부연회) 등을 출간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9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9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9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후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를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9년 5월 17(금) - 20(일)
2) 고시 장소: HILTON LOS ANGELES AIRPORT,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설교원고 (이상4과목)
-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 주해 - 에스겔 36:22-31
 - (2) 신약 주해 - 히브리서 12:1-13
 - (3) 논문 제목 - 개혁주의 관점에서 "대제 신학"을 평가하라.
 - (4) 설교 원고 - 마태복음 28:16-20
 -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② 고시 기간 중 설교실기고시를 치를.
 -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자에게 이메일 할 것.
 - ①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②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결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 ⑥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9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6) 명함판 사진 2장
- 7)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9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합격자 발표는 43회 총회기간(5월21일-24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한재현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7일-20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 2)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하역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Rev. Jae Hyun Han / Email: jhanrev@gmail.com
주소: 1173 Elm Ave, Seaside, CA 93955 U.S.A. / 전화: (831) 920-7043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조용철 목사 (702) 296-9193, drjho@hotmail.com
- 2) 고시부 서기: 한재현 목사 (831) 920-7043, jhanrev@gmail.com